26일 Market Index
코스피 5469.47 (-80.83)
코스닥 727.21 (-24.48)
금리(국고채 3년) 3.789 (-0.014)
환율(원-달러) 1322.70 (-1.9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하나금융그룹

금·엔화 값 '추락'… 안전자산의 배신

금값 연초 최고점서 28%↓
국내 13개 금 펀드 수익률
3개월 -8.6%, 6개월 -21.4%
엔달러 환율 156.93 머물러
개인 엔화예금 잔액 급증가



눈물 훔치는 안중근 의사 후손 안의생 선생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독대 : 안중근이 남긴 여덟 글자' 전시 개막식에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후손 안의생 씨가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관람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안 의사가 순국을 앞둔 1910년 3월 뤼순 감옥에서 남긴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이 유묵은 당시 국제법이 강대국 논리에 좌우돼 약소국의 주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4월 금 펀드에 5000만원 넘는 돈을 투자한 김모(41)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금값이 연일 하락하는 바람에 여섯 달 사이 1000만원 넘게 잃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금값이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는 얘길 듣고 투자했는데, 막차를 탄 것 같아 후회된다"며 "손실이 너무 커서 팔 수도 없고 스트레스가 심해 당분간 잊고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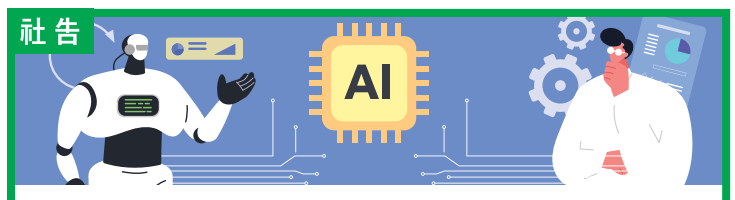
안전자산의 배신일까. 인공지능(AI) 버블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지만, 금·엔화·국채 등이 '안전자산'이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26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은 온스당 4005.06달러(오후 3시 기준)에 거래됐다. 지난 1월 29일 사상 최고치(5595.46달러)보다 28.42% 낮다. 장중에는 4000달러를 밑돌았다.

뒤늦게 여윳돈을 털어 넣었던 투자자들은 원금을 까먹는 신세가 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내 금 펀드 13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7.53%였다. 3개월(-8.58%), 6개월(-21.38%), 연초 후(-14.31%) 수익률은 더 나빴다.

특히 '블랙록월드골드' 펀드의 3개월 수익률이 -15%대를 기록했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도 망연자실이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ACE KRX금현물과 TIGER KRX금현물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1.79%, -9.84%였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긴축기조 한은, 美·日 기준금리 결정 '촉각'

美, 이달 동결확률 92% 제시
공식 전망은 '연내 추가인상'
日 '인상기조' 시기·속도 판단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준의장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동결 이후 긴축(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이번 주 미국과 일본이 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미·일의 정책 경로와 국내 성장·물가 흐름이 한은의 다음 금리 판단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지시간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결과는 한국시간 29일 오전 3시 발표된다. 일본은행은 29~30일 회의를 열고 30일 금리 결정과 새 경제·물가 전망을 공개한다.

한은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유지했다. 신현송 총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자료를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총재는 "연준 결정이 금융여건과 자산가격을 통해 세계로 파급된다"며 "한국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했다. 동시에 7·8월 선제 인상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정책을 펼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대외 정책 변화의 파급과 국내 여건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다.

◆ 9월 점도표에 남은 연내 인상 전망

미국의 이번 동결 기대는 금리 선물시장에 반영돼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은 지난 23일 자 시장해설에서 페드워치가 반영한 10월 동결 확률을 92.2%로 제시했다. 연준은 지난 9월 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다. 현재 목표범위는 연 3.75~4.00%다.

하지만 연준 참석자들의 공식 전망에는 연내 추가 인상 여지가 남아 있다. 참석자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9월 점도표를 집계하면 전망 제출자 18명 중 16명이 올해 말 금리를 현 수준보다 높게 제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도 대부분의 참석자가 연말까지 추가 인상이 적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9월 회의 이후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7%로 8월의 3.4%보다 높아졌다. 같은 달 비농업 고용은 전월보다 2만9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2%였다. 이번 회의에는 새 점도표가 나오지 않아 성명과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9월 전망 이후 정책 판단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핵심 자료가 된다.

◆ 日도 인상 방향 유지

일본은행은 추가 인상 방향을 유지하면서 시기와 속도를 판단하는 단계다. 지난 9월 정책금리를 1.25%로 올린 뒤에도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경제·물가와 금융여건에 따라 정책금리를 계속 올리되, 전망 실현 가능성과 위험을 점검하면서 인상 시기·속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발표된 일본의 9월 신선식품 제외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올라 8월의 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30일에는 금리 결정과 함께 새 경제·물가 전망이 공개돼 기조적인 물가 흐름과 추가 인상 방향에 대한 일본은행의 판단이 제시된다.

국내 물가 역시 한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이다. 9월 소비자물가와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9%, 2.8%였다. 한은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1월 26일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靑,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가닥

당초, 내년 1월에 시행 예정
美와 정보공유 2029년 유력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국가 간 정보 공유에 합류하는 시점인 2029년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정부·정치권의 세법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을 개정을 통한 과세 유예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데 무게를 두고 유관기관 등과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6년 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 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한 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행은 3차례 유예됐고 2027년 1월 시행으로 지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뤄질 경우 4번째 유예다.

최근 업계와 국가 간 과세정보 교환 체계가 완전히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정부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내년 가동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46개국이 정보교환을 시작한다. 캐나다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참여한다. 거래가 가장 많은 미국은 2029년에야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 당선 축하…"미래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사진 뉴시스

▲김지용 중수청장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 일부 '안 한 것'으로 보여"

▲윤호중 "한강버스 예산, 사실상 불승인…적자 축소 근거 부족"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5당 원내대표 회담 열자…탄핵안 처리해야"

▲북 "지뢰폭발, 한국 조작"…유엔 안보리 의장에 서한

▲김민석 "11월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안전 예산 확보에 당력 집중"

스마트폰 제조사, 폴더블폰 희비… 삼성 '약진'·애플 '삐걱'

삼성, 유럽 등 글로벌 판매 증가
애플, '아이폰 듀오' 내구도 논란
화웨이, 패널 출하량 감소 전망



서울 삼성 강남에 갤럭시 폴드8 및 플립8이 전시되어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연말 폴더블폰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릴지 주목된다. 애플이 첫 폴더블폰 출시 직후 화면 파손 논란에 직면한 데 이어 화웨이의 성장세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연말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23일 출시한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에서 내부 디스플레이 파손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일부 제품의 화면 접힘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밝은 선이 생기면서 내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 등은 호주의 한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지 약 6시간 만에 내부 화면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사례를 보도했다. 해당 구매자는 기기를 20회 미만으로 접었다 폈으며 외부 충격도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 매장에 전시된 제품에서도 유사한 손상 사례가 공개됐다.

IT 유튜브 채널 '제리릭에브리띵'이 공개한 내구성 시험 영상에서도 아이폰 듀오의 힌지와 화면에 손상이 발생했다. 먼지와 모래를 뿌린 뒤 기기를 반복적으로 접는 과정에서 힌지 작동에 문제가 생겼으며, 반대 방향으로 구부리자 내부 화면에 녹색 선이 나타나고 터치 기능이 멈췄다.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은 해당 채널의 내구성 시험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 뒤에도 내부 화면이 정상 작동했다. 삼성전자는 첫 폴더블폰 출시 이후 힌지와 디스플레이 구조를 개선해 왔으며 올해 폴드8에는 티타늄 소재를 적용한 '플렉스 티타늄' 기술을 탑재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를 추격해 온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전망치도 낮아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화웨이의 폴더블폰 출하량 점유율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38%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화웨이의 폴더블폰용 패널 출하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화웨이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줄어드는 반면 삼성전자용 패널은 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완제품 판매량이 아닌 패널 출하량 기준이다.

이처럼 경쟁사들의 부진이 예상되는 반면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서 폴더블폰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삼성전자 영국 뉴스룸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과 폴드8 울트라의 유럽 합산 판매량은 출시 이후 9주간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실제 유럽 내 온라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삼성 폴더블폰 관련 구글 검색량은 전월 대비 26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유럽 판매 실적은 아이폰 듀오 출시 이전에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애플의 화면 파손 논란에 따른 반사이익은 향후 판매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즈 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폰에 대해 초기 공급 물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별로 판매와 제품 인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함평군 공고 제2026 - 1198호

나산강 공공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나산강 공공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7.

함 평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2. 31. ~ 2027.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나산강 공공야영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520-3번지 일원	5,790㎡	함평군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 10. 27. ~ 2026. 11. 11.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평군청 관광정책실 관광개발팀 (☎ 061-320-2223)
다.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함평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가. 열람기간만료 → 감정평가법인선정(주민추천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조서, 권리관계 등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장소에서 열람가능

K-기업, 인니 전동화 시장 공략

현대차, 발리 주정부 전기버스 공급
롯데이노베이트, 인프라 사업 확대

국내 자동차·충전 인프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대중교통 전동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전기버스와 충전 설비, 운영·관제 기술을 공급하고 현지 경험을 동남아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카운티 일렉트릭 전기버스 11대를 발리 주정부에 공급했다. 채비는 같은 사업에서 100㎾급 급속충전기 6기의 공급과 구축을 맡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ODA 지원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추진하는 약 92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이다. 관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발리에 처음 공공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충전 시설을 함께 보급해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현대차가 공급한 차량은 현지 특장업체와 협업해 제작한 20인승 중형 전기버스다. 128킬로와트시(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1회 충전으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공급 이후에도 주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자바에서는 롯데이노베이트의 전기차 충전 전문 자회사 이브이시스가 별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7월 서자바주 간선급행버스(BRT) 루이판장 차고지에서 충전소 설치 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ODA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200㎾급 급속충전기와 통합 관제 플랫폼이 적용된다. 충전기 공급에 에너지 관리와 설비 운영·관제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브이시스는 현지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비 공급과 함께 현지 운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혁 기자 sh95@

전문가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워"

›› 1면 '금·엔화 값 추락…'서 계속

'악' 소리가 나는 건 금만이 아니다. 안전자산의 대표 격인 엔화 값도 추락하고 있다. 일본 기준금리는 연 1.25%로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엔달러 환율은 156.86에 머물고 있다. 엔화 값이 싸지자 투자자들이 '엔화 사재기'에 나서면서 15일 국내 개인 엔화예금 잔액은 2656억2000만 엔으로 불었다. 2024년 11월(2715억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뭉칫돈이 몰렸던 채권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26일 오후 3시(한국시간) 기준 연 4.969%를 기록했다. 200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7일 연 5.3645%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5%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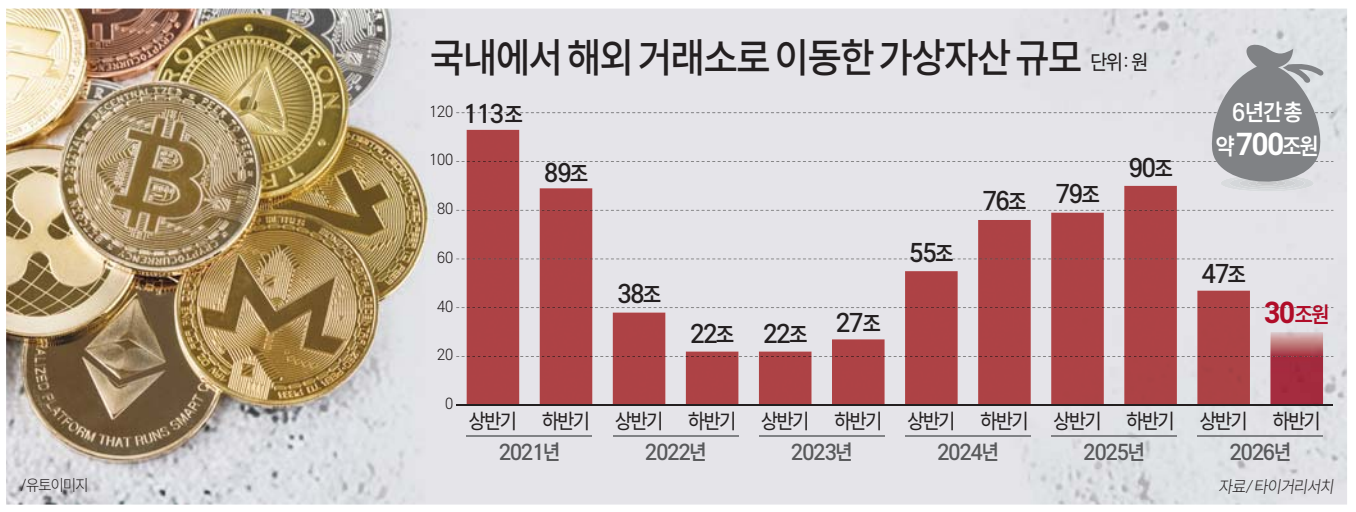
개미들은 안전자산 '삼형제'에서 발을 빼야 할지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동반 약세를 보이던 미국 국채와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금융시장이 신용 혹은 경기침체 리스크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며 "고유가 장기화와 프랑스 재정 리스크에 이어 AI발 불안마저 가세했다"면서 이들 요인들이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순환에 민감한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엔화는 최근 몇 년보다 매력적인 헤지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처리 난항… 해외자금 이탈 우려



엇갈린 규제 시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입법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입법 공백이 이어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美,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향 확정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첫 시행 규칙을 확정 및 발표했다.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준비금 확보 의무, 상환 요청에 대한 처리 시한, 자본금 확보 기준,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지급 금지 등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세칙들은 내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의 최초 시행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美, 스테이블코인 시행 세칙 확정
발행 준비금·상환 기준 구체화
이자지급 금지 등 시장 규율 강화
EU·日 등 주요국 제도 정비 속도

‘지니어스법’은 실제 통화가치와 연동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99%가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만큼,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국제 표준을 제시하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세칙에는 발행자의 이자지급 금지 의무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거래소가 지급하는 예치 보상은 허용하되, 발행자가 거래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당 내용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서 주로 논의됐던 내용이나,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니어스법에 편입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미 규제당국이 사실상 ‘발행자에 의한 직·간접적 이자 지급 행위의 원천적 금지’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율 방향을 확정한 것으로 내다본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시장 안전성 및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마련된 셈이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입법 불투명

주요국의 규제당국이 시장 안전성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멈춰섰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과정이 사실상 멈춰서서다.

지난해 6월 여당이 최초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을 마련하고,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 규제의 뼈대가 되는 ‘기초법’으로 평가받는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의 과반 지분 확보 여부(은행 컨소시엄) 등 쟁점이 남아 있다.

은행 지분·거래소 규제 이견 여전
정부안 마련 지연에 국회 통과 난망
ETF·법인 거래 허용 논의도 정체
투자자 해외 이동 가속 가능성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는 점도 기본법의 입법 동력이 상실됐다는 근거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9년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권에서 제도 및 인프라 부족, 투자자산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과세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기본법의 연내 입법이 현 시점에서 불가함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 입법 지연 시 ‘투자자 이탈’ 우려

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업권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 허용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 등 과도한 국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늦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다수 논의했으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발의 이후 기본법 체계 마련을 우선시 하면서 해당 논의들은 멈춰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품 다양성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규제 불확실성 등 요인이 뚜렷해서다. 가상자산 리서치 전문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광일 의원실은 오는 11월 2일 국회에서 업계 및 금융위·재경부 등 부처 관계자를 초청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의원들은 여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의원들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기 입법을 주장해 왔다.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 등으로 올해 초 제정됐어야 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1면 ‘靑, 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가닥… 서 계속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에 정부도 고심

한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시작되기 이전에 가상자산 과세를 개시했다. 우리 정부 역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해외의 과세 정보도 수집할 수 있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자 정부도 과세 유예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시행 시점은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도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정보 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스터빈 국산화·첫 해외 공급… 산업 생태계 글로벌 확장

⑦ 두산에너빌리티

DOOSAN

국내 발전설비 산업에서 핵심 기술의 자립과 소재·부품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을 앞세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외 업체에 의존해 온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데 이어 국내 발전소 상업운전과 해외 수출로 성과를 넓히고 있다. 가스터빈 국산화가 초내열합금과 정밀주조 등 연관 산업의 기술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는 향후 과제로 꼽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2028년까지 경남 창원사업장의 대형 가스터빈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8기에서 12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보다 생산능력을 50% 늘리는 것으로, 국내 발전소 공급 확대와 해외 수출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산 가스터빈의 상용화와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역량뿐 아니라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2028년 창원사업장 대형 가스터빈 연간 생산능력 8기→12기로 확대

지난달 보령신복합발전소 최초점화

스페이스X에 380㎿ 가스터빈 공급

공급 확대 위해 서비스 역량 필요







❶ 지난 2월 11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이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제작 중인 발전용 가스터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❷ 지난 10월 6일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개최된 380MW 가스터빈 출하식에서 스페이스XAI 주요 관계자들과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두산에너빌리티 임직원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하고 제작한 380MW급 가스터빈 제품. /두산그룹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3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착수해 2019년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2021년부터 국내 산학연 340여 개 기관과 함께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모델 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기술과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가스터빈은 압축한 공기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이 회전력으로 발전기를 구동하는 설비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는 만큼 정밀주조와 초내열 합금, 냉각 및 연소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된다. 국내 발전소에서는 그동안 대형 가스터빈을 주로 해외 업체에서 도입해 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독자 개발 이후 실제 발전소 적용을 통해 기술 검증을 이어왔다. 한국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 국산 가스터빈은 2023년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개발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이 상업운전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후속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발전설비를 공급한 보령신복합발전소 1호기는 지난 9월 29일 가스터빈 최초점화를 마쳤다. 보령신복합발전소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복합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적용한 한국형 표준가스복합 실증사업이다. 향후 계통병입과 부하시험, 신뢰도 운전등을 거쳐 2027년 3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경남 하동복합발전소에 2기, 경기 고양창릉열병합발전소에 1기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두 발전소 모두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산 가스터빈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 발전설비 산업의 기술 자립에도 의미가 커지고 있다. 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국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게 되면 신규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장기간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과 정비 기술도 국내에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6일 창원 본사에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AI에 공급할 380MW급 가스터빈의 첫 출하식을 열었다. 미국 기업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 가운데 첫 제품이 출하되면서 국산 가스터빈의 해외 공급이 가시화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에서 총 12기의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확보했으며, 올해 3월 계약한 7기는 2029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가스터빈이 글로벌 발전설비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전 실적과 장기적인 서비스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 핵심 부품 공급망 강화…국내 협력사와 기술 개발

가스터빈 국산화가 완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 가스터빈은 수많은 정밀 부품으로 구성되며, 특히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블레이드와 연소기 등은 소재와 가공 기술의 난도가 높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부품 제조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HD현대마린엔진과 가스터빈용 정밀주조 제작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블레이드 소재 시제품 제작 계약을 맺었다.

양사 협력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용 블레이드 설계와 품질 평가를 담당하고, HD현대마린엔진은 블레이드 정밀주조 소재 제작을 맡는다. 가스터빈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의 국내 제작 역량을 높이고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 가스터빈 외에도 기존 해외 제작사 설비의 정비용 부품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남부발전과 2018년부터 7F급 가스터빈 고온부품 개발사업을 공동 수행해 터빈과 연소기, 로터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했다. 해당 부품을 적용한 부산빛드림발전소는 지난해 시운전에 성공해 상업운전 중이다.

발전설비 공급 이후의 부품 조달과 유지보수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5월 한국남부발전과 하동복합발전소 및 고양창릉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가스터빈 3기에 대해 총 4800억원 규모의 장기 부품조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고온부품 공급과 재생정비, 소모성 자재 공급, 기술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스터빈은 상업운전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요한 만큼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 생산능력 1.5배 확대…납기·품질 경쟁력 확보 관건

국내외 수주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사업장에 터빈·발전기 공장과 고온부품 공장, 정격부하 시험동등을 갖추고 가스터빈 제작과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8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12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능력 확대는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발전설비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발전설비 발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형 가스터빈은 제작과 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완제품 조립 능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온부품을 비롯한 핵심 소재와 부품의 생산능력이 함께 확대돼야 하며, 협력사들이 요구되는 품질과 납기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도 중요하다.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기존 글로벌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GE버노바와 지멘스에너지, 미쓰비시파워 등은 오랜 발전설비 공급 경험과 운전 실적을 확보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두산에너빌리티로서는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납기 준수, 부품 공급,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

HD현대마린엔진과 부품 제조 '맞손'

남부발전과 주요 부품 국산화 추진도

설비 국산화와 경쟁력 확보는 별개

가격부터 유지보수 능력 등 입증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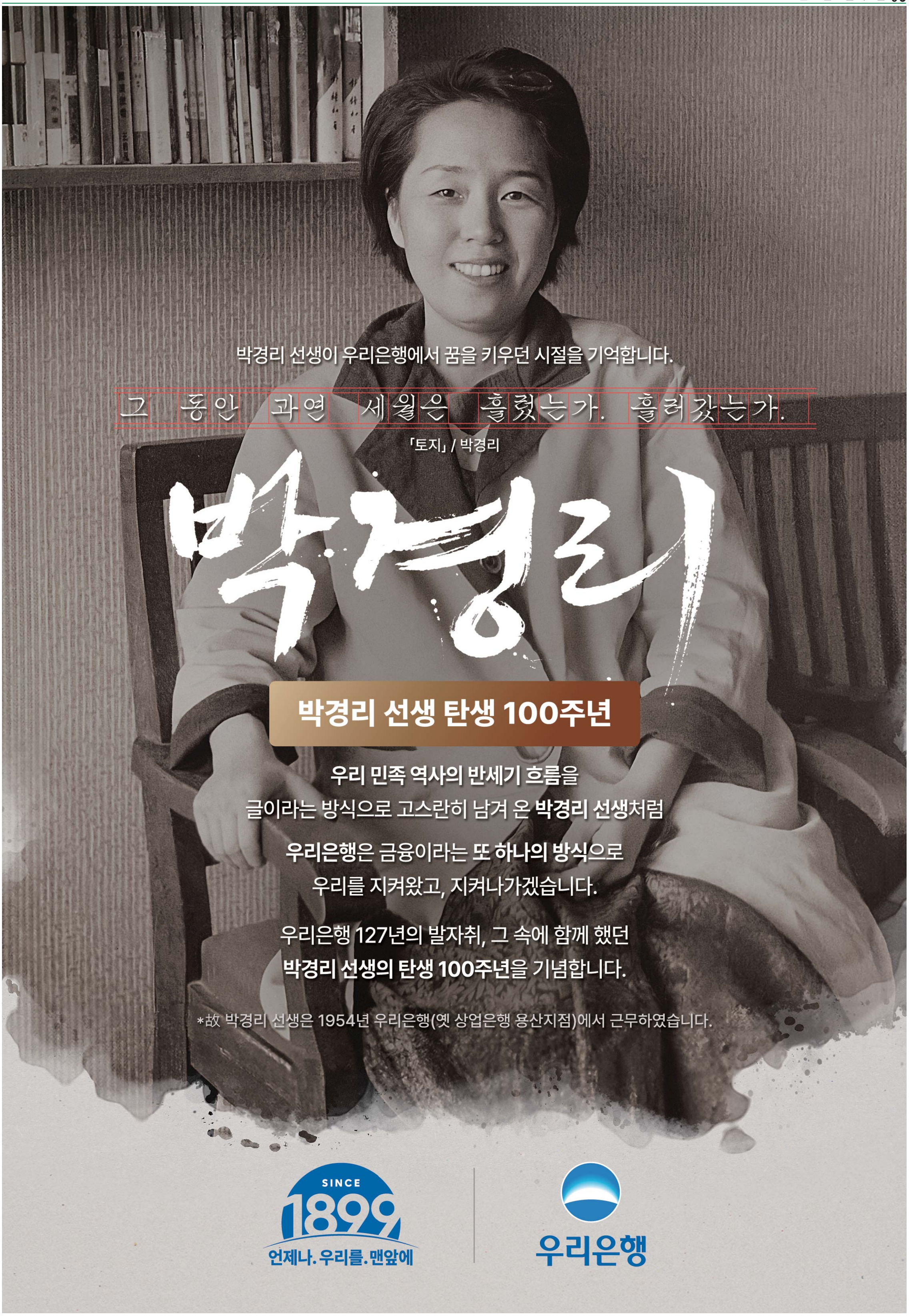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발전설비 국산화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에서 설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기술적 성과와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가스터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 국산화의 의미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터빈은 국방 분야의 핵심 설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전력 생산에는 다른 발전 방식도 활용할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국산 가스터빈이 실제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 발전설비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화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과 품질, 안정적인 부품 공급 능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의 상업운전과 해외 수출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해 나가는 가운데 향후 생산능력 확충과 핵심 부품 국산화가 실제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박경리 선생이 우리은행에서 꿈을 키우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동안 과연 세월은 흘렀는가. 흘러갔는가.
「토지」 / 박경리
박경리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
우리 민족 역사의 반세기 흐름을
글이라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남겨 온 박경리 선생처럼
우리은행은 금융이라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왔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은행 127년의 발자취, 그 속에 함께 했던
박경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故 박경리 선생은 1954년 우리은행(옛 상업은행 용산지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SINCE 1899
언제나. 우리를. 맨앞에
우리은행

오세훈 무죄에 민주당 "정치 판결" vs 국힘 "탄핵 빌드업"

국회 법제사법위 종합감사
민주, 사법부 정치 판결 의혹 제기
국힘 "與, 탄핵 명분쌓기만" 질타
고성 이어지며 감사 중단되기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주요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엉망진창인 판결문"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민 치안과 안전을 논해야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의 판결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뒤섞여 있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엉망진창"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와 결합한 판결이란 취지로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께서 사법 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 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재판에 대해서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행정처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올해 국감 시작할 때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명분 쌓기)으로 시작했다"며 "오늘까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군불떼기 하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장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에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전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이런 국가가, 이런 정부가 있었던가 정리를 했다"며 "주요 기관들이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실에서 국감장에 띄운 PPT(발표 자료)엔 대통령실,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에 이재명 재판을 담당한 변호인들이 주요 공직에 진출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PPT엔 민주당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의 이름도 있어서 여당 측의 반발이 나왔다. 고성이 이어지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회한 뒤 질의를 속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여권, 용산공원 개발 추진에 서울시 '반발'

규제 완화하는 법안 잇달아 발의
오세훈 시장 "현행 특별법 취지 어긋나"

범여권이 현행법상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 속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야당과 서울시의 반대를 극복하고 법안 처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용산공원 부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상 주택 공급이 금지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인 1·29 대책에서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2500호, 용산 501 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은 계류돼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의 양질의 주택 공급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본체 부지 일부에도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게 지원하는 법안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26일 처음 발의했다. 차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중 택지조성 가능 면적을 전체 면적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김남근·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같은날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안은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으로 마련하도록 했고, 박 의원안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에 한해 본체부지 중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것과 당의 지원을 받고 실제 처리까지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의 주택 공급 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이자는 것이다. 즉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용산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등 부지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관련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부동산 법안인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대립으로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7주기 추모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힘, 산업화 성과 강조하며 李 정부 비판

박정희 서거 47주기 추모식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산업화가 잘사는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면 이제는 잘사는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의 절박한 과제였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업화를 나라의 미래로 제시하셨다"며 "수출의 길을 열고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도로와 항만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오 시장이 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일부 시민들이 "너도 역적이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인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의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 왔다'를 인용하며 "다음 선거만 바라보는 정치가 나라를 흔드는 지금 이 말씀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온다"고 추모사를 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1974년 8월15일 육 여사님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흉탄에 쓰러지셨다"며 "북한은 반세기 동안, 이 비극의 책임을 부인·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타자로 나온 이진숙 의원이 발언에 나서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진숙, 이진숙"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좌절과 농민들의 농지 보전 어려움,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도 언급하며 "국민의 집과 땅과 삶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별도로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다. 다만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추모식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 유족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자리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농어민 만나 CPTPP·농지 조사 설득

"피해 없을 것… 직불금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고, 농가를 위한 공익직불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열고 CPTPP 가입은 전 회원국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르고,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오해,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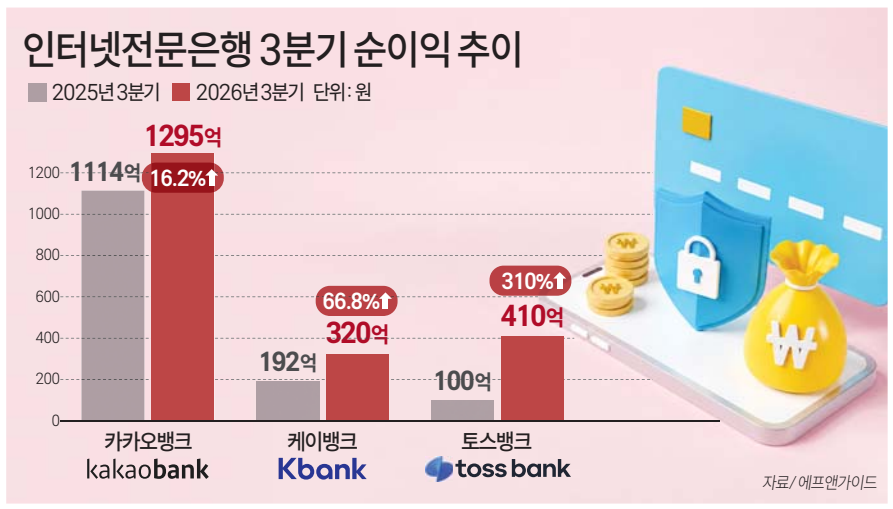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어 "농업상생기금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이더라. 배신감 같은 것이 들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함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으면, 명확히 의무로 이행해야 된다. 신뢰 회복의 차원에서 그건 정부가 마저 다 채워 넣자"고 말했다.

아울러 양극화 완화 등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과제 중 하나로 '공익직불금'을 언급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가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직불금은 공적보조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상향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KT 네트워크 기술이
대한민국의 연결을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최동단 섬 독도
최남단 섬 마라도
서해와 남해 가운데 섬 추자도
주민 단 한 명이 거주하는 추포도까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그곳이 대한민국 땅이라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KT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KT는 보편적 역무 사업자로서 전국 440개 도서지역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생활 기본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도… 인뱅 3사, 3분기 호실적 예고

카카오뱅크, 당기순익 1295억 전분기비 줄고, 전년대비 16%↑
케이뱅크, 대출 성장률 5.5% 확대
토스, 상반기 당기순익 '역대최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3분기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둔화할 전망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역시 대출 규제에 따른 성장 부담 속에서 수익성 개선 여부가 실적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29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4억원)보다 1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전분기(1408억원)와 비교하면 8.0% 감소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 성장 둔화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카카오뱅크의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을 1251억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시장 컨센서스를 12.0% 밑도는 수준이다.

강 연구원은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비대면 전 금융권 대출 조회 서비스 확대에 따른 판매관리비 증가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4분기에는 대출 성장세 회복과 순이자마진(NIM)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4분기 대출 성장률 제고 기대가 유효하고 예대율 개선을 통한 NIM의 추가 개선, 그리고 2027년 비이자이익의 개선 가능성은 기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케이뱅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억원)보다 66.8% 증가할 전망이다. 전분기(269억원)와 비교해도 19.1% 늘어난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출 성장세와 순이자마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케이뱅크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소호대출의 고성장에 힘입어 대출 성장률이 5.5%로 확대됐으며, 순이자마진도 전분기보다 4bp(1bp=0.01%p)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손충당금 부담과 비이자이익 정체는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전 연구원은 대손율이 여전히 100bp 수준에 머물고 있고, 소호대출의 담보·보증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 지표의 추가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신규 상품 출시와 고객 기반 강화가 수익성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스뱅크가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5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41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성장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토스뱅크가 3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과거 처럼 대출 규모를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대출 성장뿐 아니라 건전성 관리와 비이자이익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청년층 취업자 3명 중 1명 임시·일용직

한은,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임시·일용직 32.6%, 전년보다 하락
'고용 질 지수' 평균 94.7로 낮아져
신규채용 줄여 청년층에 충격 집중

청년층이 취업 눈높이를 낮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임시·일용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통로도 좁아져, 경기가 회복돼도 청년고용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32.6%였다. 지난해 33.0%보다는 낮지만 2022년 30.7%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용 안정성과 근로시간, 실직 위험 등을 종합한 청년층 '고용의 질 지수'는 2023년 1월~올해 9월 평균 94.7로, 과거 청년고용 부진기인 2014~2019년 평균 101.1을 밑돌았다. 2010년 1월~올해 9월 가운데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 평균을 100으로 놓은 지수다.

올해 1~9월 청년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6.6%로 과거 부진기 평균 9.4%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과거에는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다리며 실업 상태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임금과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면서 부진이 고용의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에는 IT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있다. 반도체 등 IT제조업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상용직 채용은 크게 늘리지 못하는 반면, 채용 비중이 높은 비IT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성장세가 약해졌다. 기업이 기존 인력의 고용과 임금을 조정하기보다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확산도 경력직 중심 채용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산업에서 신입이 맡던 기초 실무·조사·분석 업무의 일부가 자동화되면서, 기업이 신입을 육성하기보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일자리 간 이동성도 약해졌다. 23~28세 비재학생을 추적한 청년패널 분석에서는 1차 노동시장의 동일 일자리 유지 비율이 높아진 반면, 미취업자의 진입과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의 이동은 줄었다. 이 분석에서 1차 시장은 민간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2차 시장은 그 밖의 민간 임금근로 일자리다. 다만 과거와 최근 조사 패널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해도 실제 진입은 어려웠다. 청년패널의 2021~2023년 조사에서 대기업 취업을 원한 23~28세 비재학생 미취업자 가운데 이듬해 1차 시장에 진입한 비율은 12.1%였다. 27.8%는 2차 시장에 취업했고, 60.0%는 실업·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물렀다.

한은 연구진은 청년들이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잃으면 노동수요가 살아나도 고용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응책으로 IT산업의 성과가 연관 산업과 내수로 퍼지도록 하고, AI 교육·훈련을 실제 직무 수요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과 고용계약 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은행 기업예금 급증, 가계자금 증시 이탈

기업 원화예금 813조, 전년비 18%↑
지난 5월부터 4개월 간 가계예금 감소

은행권의 기업예금이 813조원으로 급증한 반면 가계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기업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는 사이 가계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이다. 기업의 거액예금과 금리에 민감한 저축성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자금조달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은행 수신 구조의 변화와 안정적 유동성 확보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기업 원화예금은 81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6% 증가했다. 전체 원화예금 2268조원에서 기업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9%에 달했다.

기업예금이 빠르게 증가한 배경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유입되면서 기업 원화예금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계예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 원화예금은 올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8월에는 3.5%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지난해 5월 61조원에서 올해 9월 99조원으로 36.9% 증가했다.

가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은행권의 저원가성 예금 기반도 약화하고 있다. 지난 8월 핵심예금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0.5%로 둔화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예금을 제외한 저축성예금은 7.1%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은행권, 4분기 기업·가계 대출문턱 높인다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올해 4분기 국내은행들이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등의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은 실수요 자금에 대한 총량관리 방식 조정 등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보되면서 전 분기 수준의 대출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1로, 3분기(-20)보다 9포인트 높았다.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기조가 이어지되 그 정도는 전분기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대출태도지수는 -100~100 사이에서 산출되며 음수는 심사 강화, 양수는 완화 방향을 나타낸다.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주택대출의 태도지수는 3분기 -17에서 4분기 0으로 높아졌다. 주택 관련 대출의 심사 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지난 8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보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 자금을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상향 조정한 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 일반대출의 태도지수는 -28에서 -8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대출은 대기업이 0에서 -8로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19로 전분기와 같아 모두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의 대출수요는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14로 3분기와 같았고, 일반대출은 17에서 3으로 낮아졌지만 증가 방향을 유지했다.

/김주형 기자

KB손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KB손해보험은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은 4급 ▲AI·데이터 ▲경영지원 ▲상품·계리 ▲자산운용 ▲일반보험 ▲영업관리 등 6개 부문과 6급 영업지원(지점 매니저)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입사지원서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 23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채용에서는 AI·데이터 분야 인재 확보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 등 전사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직무별 관련 학습·프로젝트 경험과 보험·금융·디지털 분야 전문 자격 보유자 등을 우대한다.

4급은 서류전형을 시작으로 AI 역량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및 채용검진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김주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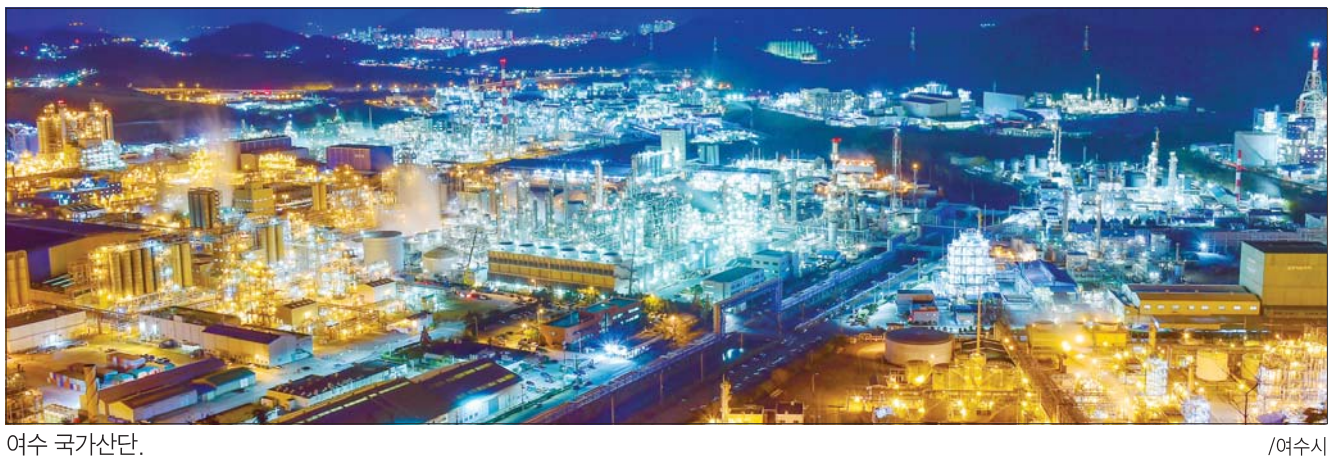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ETF 추가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자산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투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하나 MP(Model Portfolio) 구독서비스'에 상장지수펀드(ETF) 포트폴리오를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하나MP 구독서비스는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시장 동향 등을 카카오톡으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기존 펀드 중심이었던 포트폴리오에 ETF가 추가됐다. /나유리 기자



여수 국가산단. /여수시

정유, 정제마진 강세 3분기 '방긋'
석화, 원가부담·수요 부진에 '울상'

정유·석화 수익성 격차 확대 전망
중동·러 공급 차질에 정제마진 강세
SK이노·에쓰오일, 영업익 급증 전망
윤활기유 마진 확대도 실적에 기여

석화, 고가 원료 투입에 수익성 악화
롯데케미칼·LG화학, 석화 적자예상
공급 과잉에 실적 회복 장기화 우려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의 3분기 실적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공급 차질에 따른 정제마진 확대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지만 석화업체들은 수요 부진에 고가 원료 부담까지 겹치며 상반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과 러시아의 석유제품 공급 차질로 정제마진이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사들의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윤활기유도 공급 부족에 따른 마진 확대로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각각 2조원대와 1조원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SK이노베이션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6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0.0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에쓰오일은 1조2372억원으로 439.76% 늘어날 전망이다.

석화업계는 상반기 실적을 뒷받침했던 저가 원료 투입 효과가 줄면서 적자 전환이나 감익이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원료가 투입돼 제품 가격 상승의 효과를 누렸지만 3분기에는 비싸게 매입한 원료가 시차를 두고 투입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래깅 부담이 커졌다.

석유화학업계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에틸렌 스프레드도 줄었다. NH투자증권 집계에 따르면 3분기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201.9달러로, 2분기 256.2달러보다 21.2% 축소됐다. 통상 손익분기점의 하단으로 보는 톤당 250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3분기 18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영업이익 1101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서고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1326억원보다 손실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의 3분기 영업손실은 증권가에서 1500억~1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약 427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고가 원료 투입과 제품 가격 약세로 한 분기 만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흑자를 유지하더라도 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 추정치는 864억원으로, 지난 2분기 3390억원보다 74.5%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3분기 이후에도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롯데케미칼은 하반기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과 원료가격 변동성 확대를 주요 경영 변수로 꼽았다. 신규 공급까지 늘면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기 어려워 석화업계의 수익성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설비 합리화와 사업재편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수급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 수소차 5만대 돌파… 보조금은 '뒷걸음'

넥쏘 출시 8년 만에 누적 판매 5만대
보조금 예산 축소·충전망 확충은 더뎌
정책 실효성 높여 수소 생태계 키워야



현대차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했다.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정부의 보급 지원이 맞물려 이룬 성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조금 예산 감액과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등은 수소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차량 보급부터 충전망 구축까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 성장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수소전기차 5만262대를 판매했다. 2018년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넥쏘 출시 이후 8년 만이다. 2020년 누적 판매 1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2022년 2만대, 2023년 3만대를 넘어서는 등 시장 기반을 넓혀왔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연료전지 연구에 착수한 뒤 20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차 투싼ix FCEV를 선보였다. 2020년에는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양산하며 상용차로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출시한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최대 720㎞까지 늘렸다.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완성차뿐 아니라 연료전지와 수소탱크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구축했다. 현대차가 양산 중인 넥쏘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90% 이상이며, 60여 개 협력사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수소연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수소사업체 종사자는 약 3만 7000명, 관련 기업은 약 3000개로 수소 산업의 고용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소전기차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정책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 수소차 보조금은 국비가 확보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면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올해 9월 말 기준 수소전기승용차의 지방비 매칭 물량은 국비 편성 6000대의 84.9%인 5093대에 그쳤다. 수소버스 등 상용차도 국비 편성 1800대 대비 지방비 확보 물량이 약 1270대로 70.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조금 집행 부진이 다음 연도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면 시장 위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의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약 23%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SDI, 각형 배터리로 美 ESS 공략

AOP에 총 1.5GWh 공급 확정
에너지밀도 17% 높인 제품 공급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잇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기반과 각형 배터리의 성능·안전성을 앞세워 기존 고객의 추가 물량을 확보한 데 이어 다수의 현지 고객과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다.

삼성SDI는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SDIA)가 미국 에너지 전문기업 알파오메가파워(AOP)와 1GWh 규모의 ESS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체결한 1차 계약을 포함하면 AOP에 공급할 물량은 총 1.5GWh다.

AOP는 공급받은 ESS 솔루션을 내년 텍사스주에서 착공하는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인디애나주 스타플러스에너지(SPE)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연내 공급한다.

공급 제품은 삼원계(NCA) 배터리를 탑재한 일체형 ESS 솔루션 'SBB(Samsung Battery Box) 1.7'이다. 고용량 하이니켈 NCA 소재를 적용해 기존 'SBB 1.5'와 동일한 20피트 크기에 에너지밀도를 17% 높였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전 이상 진단과 수명 예측 알고리즘도 적용했다.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SDI가 독자 개발한 모듈 내장형 직분사 기술인 EDI도 탑재했다. ESS 안전 인증인 UL 9540 등을 획득했으며 미국소방협회의 화재안전 설치 표준인 NFPA 855도 충족했다.

업계에서는 삼성SDI의 잇따른 수주에 각형 배터리 기술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우치형 배터리 대비 내구성과 화재 안전성이 뛰어난 데다 북미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ESS용 배터리 업체라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폴 최 AOP 최고경영자(CEO)는 "삼성SDI의 미국산 ESS는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2차 계약으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하는 미국 내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AI·서랍형 냉동고로 프리미엄 강화

디오스 AI 스템 얼음정수 냉장고 선봬
서랍형 냉동고·맞춤 보관 기능 탑재



LG전자가 AI와 서랍형 냉동고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스템(STEM) 얼음정수 냉장고'를 출시했다. /LG전자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능과 서랍형 냉동고를 적용한 신형 얼음정수 냉장고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냉장고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스템(STEM) 얼음정수 냉장고(이하 스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템은 직수관으로 물을 공급하고 얼음을 만드는 LG전자의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다. 크래프트 아이스와 각얼음, 조각얼음 등 다양한 형태의 얼음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양쪽으로 여닫는 하단 냉동고를 중칸과 하칸으로 구성된 서랍형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중칸에는 냉동과 냉장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컨버터블 드로어'를 적용했다. LG 씽큐(ThinQ) 앱을 통해 이유식, 밀키트, 유제품, 와인, 김치, 육류, 생선 등 총 14종의 식재료별 보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AI 기반 신선도 관리와 에너지 절감 기능도 강화했다. 'AI 신선케어'는 냉장고 사용 시간대와 문 개폐 횟수 등을 학습해 식사 준비 전 집중 냉각 모드를 작동시킨다. AI 음성인식 기능도 적용했다. 사용자가 보관할 식재료와 기간 등을 말하면 적합한 보관 위치와 모드를 추천하고, 음성 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한다. 냉장고를 통해 씽큐 앱에 연동된 다른 가전도 제어할 수 있다.

식재료별 맞춤 온도 보관을 지원하는 '신선 맞춤실'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내부 공기 중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필터와 냉장고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오토 클로징' 기능도 적용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주변 소리 들리는 무선 이어폰

첫 클립형 '갤럭시 버즈 온' 공개
귀 모양 따라 밀착해 착용감 높여

삼성전자가 귀를 막지 않으면서 운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첫 클립형 무선 이어폰을 선보인다.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에 저음과 통화 품질을 보강하고, 소리가 밖으로 새는 현상을 줄였다. 26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버즈 온'을 27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블랙 단일 색상으로 가격은 29만9000원이다. 삼성닷컴과 오픈마켓, 전국 삼성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버즈 온'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주변 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품은 귀에 끼워 고정하는 클립형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형상기억합금 소재가 귀 모양에 맞춰 유연하게 휘어지며 밀착해 일상생활뿐 아니라 움직임이 큰 운동 중에도 안정적인 착용을 돕는다.

음향 기능은 저음 강화와 누음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트윈부스트 스피커'로 풍성한 저음을 구현하고 갤럭시 버즈 시리즈 최초로 '누음 저감' 기술을 적용했다. 다만 귀를 막지 않는 디자인 특성상 음량과 귀 모양, 주변 소음 등에 따라 소리가 일부 새어 나올 수 있다. 조용한 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동물복지·저탄소·친환경 목장 구현… 농업의 6차 산업 선도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이 성 철 아침미소목장 대표

관광목장 조성… 제주 명소 자리매김
치즈·요구르트 등 다양한 제품 생산
"농업도 가업이 되고 기업 될 수 있어"



이성철 아침미소목장 대표가 목장안에 있는 동물농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농업도 가업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꾸준히 도전하고 실험하는 목장이 있다. 목표하는 프랜차이즈가 현실이 되면 가족같은 직원들에게 하나, 둘씩 나눠줄 계획도 갖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가 운영하는 아침미소목장은 제주시 월평동 한라산 자락 370m 고지에 위치해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침미소목장은 연평균 35만명이 찾는 명소가 된지 오래다.

"97년 IMF 시절 목장이 어려워져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4~5년간 적자를 버티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친구가 '전업'을 권고했다. 목장을 관광목장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 위기를 넘긴 지금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

1975년 당시 젖소 5마리로 시작했던 부친에 이어 2대째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철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석탄산업훈장(94년)을 받았다. 부인 양혜숙 대표는 신지식 농업인으로 지정됐다. 양 대표는 "농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대산농촌상(제34회)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창부수다.

지금은 경찰을 하다 그만둔 아들 이원신 이사가 부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3대째 경영 기반도 마련했다.

아침미소목장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친환경'이다. 부친은 친환경 개념이 희박하던 당시부터 친환경 목장을 고집했다. 우유 생산량보다 젖소의 건강과 목장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에 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목장의 면적은 약 8만평 정도다. 이곳에선 최대 100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다. 소 한마리당 면적이 800평인 셈이다. 다른 목장들은 대부분 수입건초를 쓰지만 우린 여기서 나는 풀만 먹인다"고 설명했다.

아침미소목장은 2025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자유방목 동물복지 인증 젖소 목장' 타이틀을 받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방목생태 축산농장'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방목은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젖소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됐다. 목장이 받을 수 있는 인증 8가지를 우린 다 받았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만나 잠시 주춤했지만 이 대표의 말대로 위험을 선택해 지금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부부는 우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치즈, 요구르트, 그릭요거트, 카이막 등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목장은 무료로 개방해 많은 사람들이 체험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차 산업(생산)→2차 산업(제조)→3차 산업(경험)을 융합해 농업의 6차 산업에 도전한 것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아침미소목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2019년 낙농가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후 어느새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1개국에 나가고 있다. 2019년 당시 5200달러 수준이던 수출액은 많을 땐 21만5000달러까지 늘었다. 해외 수출 문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어 기록 갱신은 시간 문제다.

홍콩 시내를 다니는 트램에는 이 대표의 손자가 아침미소목장에서 만든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판이 붙어 있기도 하다. 국내에선 대형백화점 등을 비롯한 유통망도 30곳이 훌쩍 넘는다.

2017년 당시 1만5000명 정도에 그쳤던 연간 방문객은 현재 23배 가량 늘었다.

이 대표는 "목장을 왜 무료로 개방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처음엔 예약제를 실시했지만 지금은 예약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고 즐기시면 된다. 방문객이 많으면 제품 구입 등 매출도 늘어 우리도 좋다(웃음)."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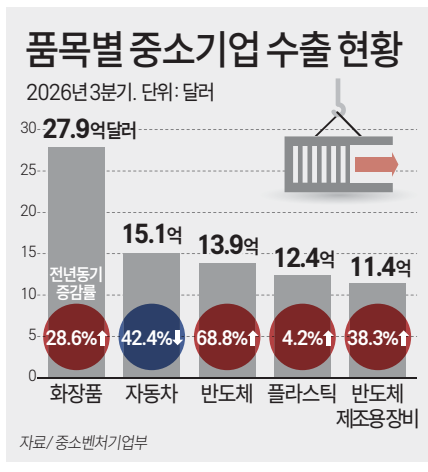
아침미소목장의 제품은 우유샌드, 우유웨하스, 아채샌드 등 디저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젖소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유와 유제품의 맛도 좋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자유방목, 동물복지, 저탄소, 친환경 운영이 우리 목장이 지향하는 가치다. 그래야 목장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

/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3분기 中企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치

화장품·반도체 중심 수출 증가세
중기부 "해외인증 등 지원사업 강화"



K-뷰티를 이끄는 화장품,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내놓은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한 334억 달러(약 44조2200억원)를 기록했다.

1~9월 누계 수출액도 전년 대비 9.5% 증가한 965억 달러(127조7600억원)로, 당기·누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9만765개사(1~9월 누계 기준)로 전년보다 1.6% 증가해 역대 최고치다.

수출 품목 가운데 화장품은 3분기 2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6% 증가했다. 1~9월 누계 76억5000만달러로 26.4% 늘어난 모습이다. 북미(+33.1%)와 유럽(+58.6%)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분기·누계 모두 역대 최고치를 냈다. 신흥시장인 중남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1.3% 증가한 3분기 실적을 내며 수출국 다변화를 보여줬다.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보다 68.8% 증가한 1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8.3% 늘어난 11억4000만 달러를 내며 AI 시장 호황을 보여줬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일본·필리핀향 수출이 크게 늘며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한 6억6000만 달러다. 반면 중고자동차는 중동 전쟁에 따른 항로 봉쇄 영향으로 UAE 수출이 크게 줄어, 3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4% 감소한 15억 달러에 그쳤다. 1~9월 누계는 26.4% 감소한 48억 달러다.

중기부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향후에도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대중소 동반진출 등 각종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한진, 토론토 풀필먼트 센터 가동
한진은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인근에 있는 '한진 토론토 풀필먼트 센터'를 새로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왼쪽 3번째부터)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 조현민 사장이 캐나다 토론토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현대글로비스, 쇼피 물류협력 본격화… K-뷰티시장 뒷받침

국내 화장품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현대글로비스가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 쇼피와 손잡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국제운송부터 통관, 현지 인허가와 물류 대행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통합한 서비스를 앞세워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돕고 비계열 물류 사업도 강화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쇼피코리아와 체결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이커머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단 간(E2E) 물류 파트너십에 따라 이달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물류 서비스의 일원화다.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화물 픽업부터 항공·해상 국제 운송, 수출입 통관, 국가별 인허가 지원, 현지 풀필먼트까지 물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E2E 솔루션을 제공한다. 물류 단계마다 서로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업무 지연과 병목 현상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화장품 인허가 절차와 현지 물류 체계는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꼽혔다. 현대글로비스는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들의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고, 판매와 마케팅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사업 지역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사는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향후 중남미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은 현대글로비스의 비계열 사업 확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30%대 수준인 비계열사 매출 비중을 2030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쇼피의 플랫폼 영향력과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벌 E2E 물류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태광산업·대한화섬, 친환경 소재 사업 확대

'에이스포라 에코' 중심 수요 대응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친환경 원사 브랜드 '에이스포라 에코(ACEPORA-ECO)'를 앞세워 지속가능한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리사이클 소재를 넘어 바이오 기반 원료와 폐섬유 재활용 기술까지 개발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친환경 소재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친환경 원사 브랜드 에이스포라 에코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스포라 에코는 양사가 2019년 공동 개발한 섬유 브랜드로, 대표 화학섬유 소재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재활용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축적된 생산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리사이클 및 바이오 기반 소재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소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 AI 기반 업무효율 개선

지식나눔회 개최… 임직원 AI 역량 강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임직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 개선에 나섰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 23일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사내 소통 프로그램 '지식나눔회'를 열고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AI 활용법을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AX기획팀 담당자가 그룹 자체 AI 서비스 '챗HK(ChatHK) 2.1'과 구글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플랫폼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의 주요 기능과 차이점, 실무 활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MONTES ALPHA
CABERNET SAUVIGNON
VALLE DE COLCHAGUA·CHILE
ALPHA
몬테스!
2025 대한민국 브랜드 고객충성도 1위
BCLI
Since 1996
Korea Brand 2025 Loyalty Leader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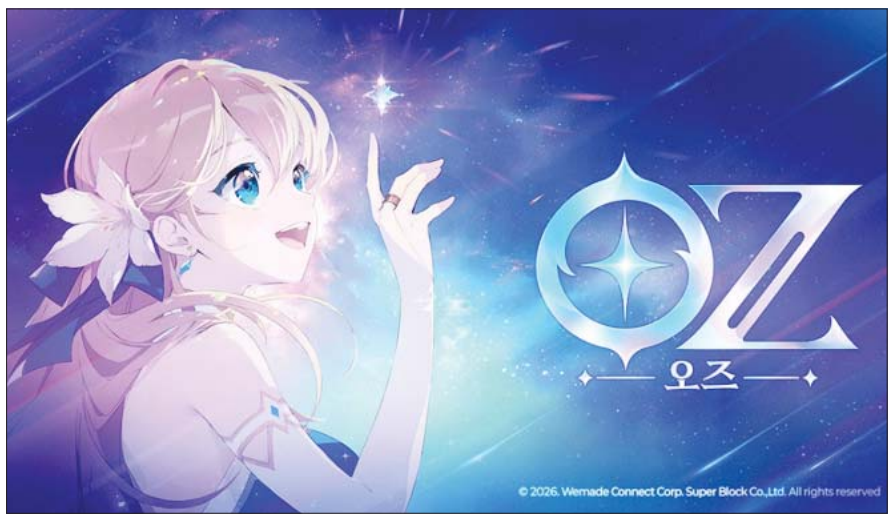
개발비 부담 리스크 줄인다… 지분투자·퍼블리싱 확장

게임업계 신작 확보전

위메이드커넥트, '오즈' 퍼블리싱
내년 韓·북미·대만 등에 출시 예정

엔씨·넥슨, 국내 개발사와 '맞손'
크래프톤·네오위즈, 자체 개발부터
외부 퍼블리싱 작품 통해 IP 발굴

흥행 선별, 안정적 수익화 '중요'



'오즈' 대표 이미지. /위메이드커넥트

국내 게임업계가 외부 개발사의 신작을 확보하기 위한 퍼블리싱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게임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과 외부 지식재산권(IP) 확보를 병행해 흥행 위험을 분산하고 신작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완성된 게임의 서비스 판권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개발 초기부터 지분을 투자하거나 기존 IP를 재정비해 글로벌 시장에 다시 선보이는 등 협력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게임을 직접 만드는 개발 역량뿐 아니라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발굴하고 서비스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맥스 자회사 위메이드커넥트는 이날 슈퍼블럭과 수집형 서브컬처 역할수행게임(RPG) '오즈'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게임사들의 외부 IP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신규 계약이다.

오즈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 출시된 게임을 기반으로 전투와 성장 시스템, 수익 모델 등을 재정비한 작품이다. 기존 세계관과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게임성을 개선해 내년 한국과 북미, 대만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위메이드커넥트는 기존 서비스작 '로스트 소드'와 '메이크 드라마: MAD'에 오즈를 추가하며 서브컬처 게임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자체적으로 새로운 IP를 개발하는 대신 외부 개발사와 협력해 장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다.

◆ 엔씨·넥슨, 외부 개발작으로 신작 공급 확대

대형 게임사들도 외부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작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퍼블리싱 작품의 출시와 사전등록이 잇따르면서 외부 IP 확보 전략이 실제 서비스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엔씨는 지난 19일 국내 개발사 슈퍼래빗게임즈가 제작한 모바일 캐주얼 게임 '행성파괴 냥냐냥'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 6개 지역에 출시했다. 퍼블리싱은 엔씨가 지난 4월 설립한 모바일 캐주얼 전문 자회사 베로플레이가 담당한다.

엔씨가 기존 주력 장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넘어 캐주얼 게임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디나미스 원과 덱사스튜디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각각 서브컬처 신작 '아스트라에 오라티오'와 MMORPG '프로젝트 R'의 퍼블리싱 판권을 확보했다.

넥슨 역시 외부 개발사의 신작을 활용해 게임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지난 21일 그레이게임즈가 개발 중인 MMORPG '템빨: 오버기어드'의 서버 및 캐릭터명 사전 선점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누적 조회 수 13억회를 기록한 웹소설·웹툰 IP를 기반으로 제작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중국 빌리빌리가 개발한 '히간: 이루실'을 국내에 출시했고, 8월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오버워치' 국내 PC 서비스를 맡았다. 자체 개발작과 외부 게임을 함께 운영하며 신작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 크래프톤, 글로벌 개발사와 손잡고 차세대 IP 확보

크래프톤은 해외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6에서는 자체 개발작과 외부 퍼블리싱 작품을 포함한 신작 5종을 공개했다.

외부 개발작은 네온 자이언트의 '노 로우', 너바나나의 '프로젝트 제타', 피콜로스튜디오의 '에이지 트위스터', 바운더리의 '타래: 언바운드' 등 4종이다. 슈팅부터 협동 어드벤처, 액션 RPG까지 다양한 장르를 확보해 배틀그라운드에 이은 차세대 흥행 IP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네오위즈도 자체 개발 신작 5종과 외부 퍼블리싱 작품 3종을 준비하며 신작 공급원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개발사와 협력해 자체 개발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장르와 이용자층을 보완하는 전략이다.

◆ 개발비 부담에 외부 IP 확보…흥행 선별 능력이 관건

게임사들이 퍼블리싱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개발비 증가와 흥행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대형 신작은 개발에 수년이 걸리는 데다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흥행에 실패할 경우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외부 개발사의 게임을 확보하면 자체 개발 조직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도 신작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개발사는 대형 게임사의 자금과 마케팅, 서비스 운영 역량을 활용하고 퍼블리셔는 부족한 장르를 보완하며 새로운 이용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외부 IP 확보가 곧바로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발사의 역량과 게임 완성도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출시 이후 이용자 확보와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까지 책임져야 한다. 계약 규모보다 흥행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별하고 안정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결국 게임사들의 경쟁은 얼마나 많은 신작을 직접 개발하느냐에서 외부의 유망 IP를 얼마나 빠르게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서비스하느냐로 확장되고 있다. 자체 개발과 외부 퍼블리싱을 결합한 전략이 신작 공백을 줄이고 실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향후 게임업계의 주요 관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韓 게임대상' 본상 후보작 12개 발표

콘솔, PC, 모바일 등 다양한 장르
흥행·완성도·기술 경쟁력 평가
붉은사막, 아이온2 경쟁 '주목'

국내 게임업계의 한 해 성과를 가리는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경쟁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성과를 거둔 펄어비스의 '붉은사막'과 엔씨의 '아이온2'가 대상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 시상식은 대형 게임사들의 자존심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6일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 본상 후보작 12개를 발표했다. 올해는 콘솔과 PC, 모바일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흥행 성적뿐 아니라 게임의 완성도와 기술 경쟁력도 주요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본상 후보작은 ▲도깨비의세계(슈퍼캣) ▲로스트 아이돌론스: 베일 오브 더 위치(오션드라이브스튜디오) ▲몬길: STAR DIVE(넷마블몬스터) ▲붉은사막(펄어비스) ▲스톤에이지 키우기(넷마블엔투) ▲이클립스: 더 어웨이크닝(엔픽셀) ▲일곱 개의 대죄: Origin(넷마블에프앤씨)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레드징코게임즈) ▲제우스: 오만의 신(에이버튼)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스마일게이트) ▲아이온2(엔씨) ▲미메시스(렐루게임즈) 등 총 12개 작품이다.

올해 대상 경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붉은사막이다. 펄어비스가 지난 3월 선보인 이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200만장, 한 달이 지나기 전 500만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국내 콘솔 패키지 게임의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엔씨는 '아이온2'를 앞세워 14년 만에 게임대상 수상에 도전한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대만에 출시된 아이온2는 엔씨의 실적 회복을 견인한 핵심 작품이다. 이달 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스팀에서 일간 최고 동시 접속자 20만~30만명 수준을 유지하며 흥행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넷마블은 후보작 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넷마블몬스터의 '몬길: STAR DIVE', 넷마블엔투의 '스톤에이지 키우기', 넷마블에프앤씨의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등 3개 작품이 본상 후보에 선정됐다. 단일 게임사 계열 기준 가장 많은 작품을 배출하며 다양한 IP를 활용한 신작 개발 경쟁력을 보여줬다.

퍼블리싱을 통한 신작 확보 경쟁도 눈길을 끈다.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도깨비의세계'와 컴투스가 퍼블리싱한 '제우스: 오만의 신'이 후보에 포함되면서 자체 개발작뿐 아니라 외부 개발사와의 협업을 통한 흥행 성과도 평가받게 됐다.

/최빛나 기자

LG U+, IPTV 첫 화면서 생활정보 제공

'유플러스 티비 오늘일상' 선봬

LG유플러스가 인터넷TV(IPTV) 첫 화면을 새롭게 단장한다.

LG유플러스는 AI를 활용해 날씨, 금융, 지역정보 등을 알려주는 '유플러스 티비 오늘일상'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IPTV 첫 화면에 실시간 채널과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TV 속 생활정보 대시보드'다. 앱 설치 또는 가입 절차 없이도 TV 리모콘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살필 수 있다.

첫 화면에서는 ▲날씨 ▲헤드라인 뉴스 ▲금융정보 ▲지역정보 ▲지역 교통통제 등 고객이 자주 찾는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유튜브 추천 콘텐츠와 와이파이 정보, 유플러스 멤버십 혜택 '유플투쁠'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정보는 TV 화면에 맞춰 직관적으로 구성했다. 날씨는 현재 기온과 시간대별·일별 예보, 미세먼지 등 지역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뉴스는 주요 기사 목록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보여준다. 지역정보는 거주지 주변의 축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교통통제에서는 거주지 주변의 사고·공사 등의 교통통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플러스 티비 오늘일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LG유플러스

/조민선 기자 msjo@

오픈AI, 국내 스타트업 AI 서비스 개발 지원

'오픈AI 모델 마스터즈' 진행

오픈AI는 국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AI 모델 마스터즈'를 23일 서울사무소에서 처음으로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행사에는 스타트업 11곳이 오픈AI 모델을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AI 편집 도구를 시연한 컷백(Cutback)이 우승했다.

모델 마스터즈는 AI 활용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과 기능으로 구현해 사업 현장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픈AI는 벤처캐피털(VC)이 추천한 스타트업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크레딧을 지원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에서 오픈AI 기술로 개발한 제품과 기능을 시연하고, 개발 과정에서 겪은 과제와 해결 방법을 공개했다.

참가 기업들은 업무 자동화와 웹사이트 제작, 커머스, 바이오 연구, 영상 콘텐츠 제작 등 여러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시연했다. 음성 모델을 활용한 사례도 다수 소개됐다.

컷백은 전문 영상 편집자를 위한 AI 편집 도구 '셀렉츠(Selects)'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픈AI 모델의 영상 이해 기능을 활용해 영상 속 장면을 분석하고, 편집 에이전트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김보민 기자 kbm@

두나무앤파트너스, 우주 데이터센터 투자

美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 투자

두나무의 투자 전문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 투자하며 글로벌 딥테크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미국 우주 데이터센터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에 투자했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설립된 스타클라우드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와 에어버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된 기업이다. 스타클라우드는 지구 저궤도에 데이터센터 위성을 배치해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총 2억5000만 달러(약 3311억원) 규모로, 맨해튼웨스트벤처스가 주도했다. 엔비디아와 시스코 인베스트먼트, 벤치마크, EQT 등 글로벌 투자사와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국내 투자사로는 두나무앤파트너스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최빛나 기자

실적 잔치에도 힘 못 쓰는 반도체주… 주주환원이 반등 열쇠

삼전닉스 합산 영업익 185조 전망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 역주행
업황 전망·추가 주주환원 분수령



코스피가 7000선에서 5000선까지 급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둘러싼 우려와 저평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증시가 급락 이후 뚜렷한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기대가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적이 반등 이끄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오는 28일, 29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 규모는 1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제시했으며,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76조원대의 역대급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적 자체가 아닌 주가에 미칠 영향에 쏠린다. 실적 개선 기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과나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추가적인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적 발표만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이끌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실적 발표 당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42% 떨어진 26만2000원에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도 2.44% 떨어진 168만1000원에 마감했다. 지난 6월 고점 대비로는 삼성전자가 36만원대에서 21만원대로, SK하이닉스는 291만원대에서 12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결국 이번 실적 시즌은 반도체 대형주의 이익 개선이 실제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실적 호조와 함께 향후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추가 주주환원책이 제시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나 보수적인 업황 전망이 나올 경우,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산업의 높은 성장성으로 용인됐던 대규모 투자가 현금흐름과 수익성을 통해 정당화돼야 하는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번 실적시즌의 대응 난이도는 지난 2분기에 비해 높을 것"이라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DRAM)의 수요 및 가격 전망, 향후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급 변화 등에 대한 컨퍼런스콜, 그에 따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변화가 중요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AI 투자와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코스피의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1만2000에서 9000으로 낮췄다. 다만 현재 주가에는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까지 반영돼 있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도 내놨다.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현재 코스피 수준 대비 60%가 넘는 상승 여력을 제시한 것이다.

◆자사주 매입 종료에 수급 공백 우려 …삼전·하이닉스 추가 환원책 주목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추가 주주환원 계획' 여부다. 두 종목에 대한 하반기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약 51조50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순매도 금액(60조원)에 86%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5조원,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던 매수 수요도 일단락되고 있다. 실적 호조가 신규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 공백이 증시 회복의 걸림돌로 남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 연구원은 "10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로 국내 증시 수급이 얇아진 측면도 있는 만큼, 이번 실적에서는 이익 신뢰성 회복과 추가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화 여부가 주가 및 수급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환원 재원으로 90조~11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약 30조원은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에 활용하고, 나머지 60조~80조원은 내년 1월 실적 확정 이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10% 한도에 가까워 자사주 소각을 통한 환원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현금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지가 관심사다. 올해로 2024~2026년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환원하는 기존 정책이 마무리되는 만큼 중장기 주주환원 기조의 변화 여부도 살펴볼 대목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3개년 주주환원 잔여 재원을 1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금배당 70조~80조원과 자사주 소각 30조~40조원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주주환원 정책에서는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웃도는 환원이 가능하며, 기존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환원 규모는 4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계기로 추가 주주환원 여력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완료했으며, 확보한 2407만주(발행주식의 약 3.3%)는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2026~2028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추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다. SK증권은 해당 주주환원 정책이 적용될 경우 시가총액 대비 주주환원 규모가 2027년 11%, 2028년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으로 유입된 자금을 특별배당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실적설명회에서 기존 예상치를 넘어서는 강화된 주주환원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솔리다임 기업공개(IPO) 철회는 기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주주환원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금융지주 CEO 승계절차 점검

이찬진 금감원장, 공정성 검증 지시
하나금융·NH농협, CEO 선임 진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확인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부원장 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 문제점을 재차 거론하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후보군 선정·검증·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사전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간 이 원장은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 승계절차의 불투명성, 이사회의 실질적 견제기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또 이 원장은 승계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지배구조 개선방안 취지와 모범관행에 부합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언은 금융지주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나왔다.

실제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은행장 등 13개 자회사의 CEO 후보 숏리스트를 확정한다. 지난달 승계절차를 개시한 NH농협금융지주도 오는 28일 자회사 CEO 후보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이봅' 개통

내년 1월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시작

한국예탁결제원이 사전 전자투표와 주주총회 당일 온라인 의결권 행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전자의결권 플랫폼 'eVOP(이봅)'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전자투표 시스템 'K-VOTE'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사전 전자투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관련 서비스로 범위를 넓힌다.

이봅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진행하는 사전 전자투표부터 주총 당일 전자총회장 투표, 현장 주총에서의 온라인 투표까지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지원한다. 예탁원이 운영해 온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에 전자주주총회 기능을 결합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비스다. 여러 기업의 주총 일정이 겹치더라도 각 기업의 안건에 투표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기능이다.

예탁원은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2021년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220개 기관투자자가 예탁원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새 플랫폼은 영상 연결과 주주의 음성 질의·발언 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인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참여를 지원하는 기능도 갖췄다. 본인 인증에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13종의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국내 운용사 최초 ICGN 가입

40개국 300개 기관 참여
글로벌 수탁자책임 강화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논의에 참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CGN은 1995년 설립된 기관투자자 중심의 국제 협의체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글로벌 정책 제언, 네트워킹 및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 300여 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의 운용·관리 자산 규모는 100조달러를 웃돈다. 특히 ICGN이 제정한 '글로벌 지배구조 원칙(GGP)'과 '글로벌 스튜어드십 원칙(GSP)'은 각국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기업지배구조 및 수탁자책임 관련 기준을 마련할 때 주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번 가입으로 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기업지배구조 및 스튜어드십 관련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자산운용은 앞으로 ICGN 회원사 전용 정책 워킹그룹과 국제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들과 주요 지배구조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글로벌 모범 관행과 정책 동향을 의결권 행사 기준, 투자대상기업 관여활동 및 수탁자책임 체계 전반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자산운용은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ESG 투자와 수탁자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신하은 기자

메리츠증권, AI 주식 분석·자동매매 지원

'OPEN API' 서비스 출시

메리츠증권은 26일 인공지능(AI)과 대화하며 국내외 주식 시세와 보유자산을 조회하고 주식 매매 주문도 요청할 수 있는 'OPEN API' 서비스를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투자 조건을 반영한 주식 분석·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고객은 AI에 'SK하이닉스와엔비디아의 현재 주가와 등락률을 비교해줘', '내 계좌에 보유한 주식과 평가금액을 정리해줘'라고 요청해 국내외 주식 시세와 자산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메리츠증권의 'OPEN API'와 'MCP(Model Context Protocol)' 기술을 통해 구현된다.OPEN API는 증권사의 시세·계좌 정보와 주문 기능을 외부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서비스이며, MCP는 AI가 이를 활용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신하은 기자

농어촌공사, 중남미·아프리카에 K-농업 DNA 심는다

3년 걸쳐 KOICA 연수 사업 진행
콜롬비아 농업·축산 공무원 초빙
농축산물 추적시스템 역량 강화 연수
과테말라·볼리비아·우간다 등도 초청



이달 중하순 한국을 찾은 콜롬비아 농업·축산 담당 공무원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중남미·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올해 과테말라·볼리비아·우간다 관계자들을 차례로 국내에 초청해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이달에는 콜롬비아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는 10월 11~24일 기간 콜롬비아 농업·축산 분야 공무원 18명을 초빙했다. '콜롬비아 국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물 추적시스템 역량 강화' 1차 연도(첫회) 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연도 연수는 콜롬비아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개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연수생들은 ▲한국의 농축산업 발전사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및 이력추적제도 ▲축산물 이력제 및 등급제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 ▲해썹(HACCP) 위생관리 체계 등 전문 강의를 접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이력관리제도와 운영체계를 확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으로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7년 2차 연도 연수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력 관리 시스템 설계·구현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이어 2028년에는 현지 적용을 위한 정책 모델과 신규 사업 제안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후속 연수에서도 디지털 기술 활용과 현지 적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콜롬비아의 농축산물 이력 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9월27일~10월10일 2주간 우간다 농촌진흥청(NARO)과 지방정부 실무급 공무원 18명을 초청했다. 우간다 역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한 차례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국의 기술을 우간다 현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관리와 병해충 조사, 수출입 검역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안전 사용 기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술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출 식물검역 실무 등을 익혔다.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를 찾아 병해충 동정·예찰과 역학조사 등 실제 검역 업무 절차와 관련 기술을 접했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을 방문해 한국의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현장을 둘러봤다. 연수에 참가한 우간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의 체계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과 기술을 배웠다. 이를 우간다 현지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난 9월 초중순에는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개 분야 관리자 11명을 초청했다. 공사는 볼리비아 관계자들이 한국의 농업용수 관리 경험·기술을 익히고, 이를 자국 관개시설 운영과 정책·사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볼리비아의 쌀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생산량은 기후 여건 등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나라의 쌀 생산량은 2023년 70만 톤(t)에서 2024년엔 가뭄 등 기후재해로 43만t까지 감소했다. 2025년도 생산량은 60만t 수준을 보였다.

연수는 농업용수 관리 실무와 정책·사업 개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농업용수 및 기후변화 ▲한국의 관개농업 및 농업기반시설 운영관리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국의 농업기술 ▲액션플랜(AP) 개발 등 4개 과정이었다.

지난 7월에는 과테말라 산림청(INAB) 소속 공무원 15명이 한국을 찾았다. 올해가 3개년차 연수로, 2024년부터 이어온 '과테말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연수가 마무리됐다. 공사는 지난 3년간 산림청 공무원 도합 48명을 초청했다.

세계산림감시(GFW)의 과테말라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을 위한 개간으로 약 160만 헥타르(ha), 산불로 약 14만ha에서 나무가 사라졌다. 서울시 면적의 29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은 과테말라의 산림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차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고령지농업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등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복원 정책과 기술을 학습했다. 또 대관령 양떼목장과 영양 산골 형제농장 등 농업과 임업을 결합한 현장을 찾아 복합 농림업 모델을 살펴봤다.

올해 진행된 3차 연수는 과테말라 공무원들이 현지 정책과 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PCP)' 작성에 중점을 뒀다. 연수 참가자들은 강원 고성 산불 피해복구 현장과 용문양묘사업소, 대관령 특수조림지를 방문해 생태복원·조림 기술을 익혔다. 안반데기 고랭지 채소단지와 삼양목장에서는 농업과 임업을 연계한 복합 농림업 모델을 학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TR, '클린화장품' 객관적 품질 기준 마련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서
8개사 14개 제품에 1호 인증서 수여
유해물질·친환경 용기 등 엄격 심사


KTR 정승호 부원장(왼쪽 다섯번째)이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인증 수여 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R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클린화장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기준이 마련돼 첫 인증서가 수여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23일 '2026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 현장에서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인증 수여식을 열고, 국내 화장품 제조 8개사의 14개 제품에 1호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제품은 ▲(주)기린화장품(바디제품, 바디클렌저, 샴푸) ▲레스케미(주)(로션, 크림) ▲(주)메디아크(로션, 크림) ▲(주)바디야씨앤디랩(폼클렌저) ▲(주)에버바이오(화장수, 크림) ▲(주)온당(샴푸바) ▲제이앤지코스메틱스(화장수) ▲(주)피에노(로션, 폼클랜저) 등 총 8개사 14개 제품이다.

이번 인증은 KTR이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제정한 클린화장품 단체표준 'SPS-M KTR 0002-7670:2025'에 따른 것이다. 클린화장품이란 '인체 유해 성분 배제(Safey)'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Sustainability)'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객관적인 품질 기준으로 입증한 화장품을 뜻한다. 단체표준(SPS)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전문 단체나 기업이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제정·운영하는 민간 임의 인증제도로, 국가표준(KS)에 없는 신기술이나 특화 품목의 품질 보증 역할을 한다.

KTR은 이번 단체표준에 따라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화장품 용기를 사용한 제품들을 엄격히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폴리텍대, 부산 잡 페스티벌서 체험관 운영

반도체, 휴머노이드 등 12개 부스 구성

한국폴리텍대학이 26일 '2026 KB굿잡 부산 잡 페스티벌'에 공동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동남권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과 전역예정 장병, 대학생 등 구직자 1만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부산·울산·창원 지역의 AI,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해양, 금융 등 신산업 분야 200여 개 우수기업이 참가했다. 현장에서는 인사담당자와의 대면 면접 및 현장 입사지원 등이 진행됐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컨설팅, MBTI별 면접 전략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폴리텍대는 총 12개 부스의 직업체험관을 구성했다. ▲반도체 생산 현장 체험 ▲VR을 통한 산업안전 체험 ▲금형 도장 DIY ▲휴머노이드 및 무인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을 선보였다.

특히 체험관에는 실제 구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사장을 누비며 관람객을 맞아, 피지컬 AI 기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 소개 및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마감임박' 임대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시행사 4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관할 관청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민간임대아파트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실제 모집률이 턱없이 낮음에도 '마감임박'이라며 소비자를 속인 시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6일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허가)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회원을 모집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4개 사업 시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드림하우징(드림시티), 베네치아(벽산블루밍), 해성산업개발(메르디앙 더 퍼스트), 에이엠디(일산 더 센트럴, 대우엘크루) 등 4개사다.

이들 업체는 2024년 11월부터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인·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드림하우징,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등 3개사는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이 28.4%~33.6%에 불과함에도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거짓·과장 광고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이 납부한 회비에서 충당돼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소상공인 상생협력 공로 인정 받아

'소상공인 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한국전력 이진화 고객서비스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3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전은 지난 23일 열린 '2026년 소상공인대회'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전이 국민에게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정부와 협력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을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하·동절기에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의 현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다. /세종=한용수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포항시, 세계 제조업 포럼 유치 총력… 밀라노서 협력망 강화

포항 산업·컨벤션 인프라 홍보
롬바르디아 주정부·산업연맹 면담
국제회의 유치 역량 벤치마킹



포항시가 밀라노서 세계 제조업 포럼 유치에 나섰다.

경북 포항시가 '2028년 세계 제조업 포럼(WMF)'을 유치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WMF 재단·주요 기관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포항시 대표단은 지난 22~23일(현지 시각) 이틀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 본사인 '팔라초 메차노테'에서 열린 'WMF 2026'에 참석해 세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살폈다.

포럼은 '제조업의 미래 항해: 트렌드 나침반과 기술 레이더'란 주제로 열렸으며, 포스텍 김덕영 교수가 '한국과 동아시아의 스마트 제조 혁신 트렌드'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세계 제조업 포럼은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제조업 재단이 매년 여는 글로벌 제조업 논의 플랫폼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학계·연구 기관 전문가가 제조업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조업 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제언한다.

이번 방문은 포항시 마이스산업과 국제회의유치팀이 사전에 구축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유치팀은 지난 7월부터 WMF 재단의 마르코 타이쉬 학술위원장, 데이비드 로메로 학술부위원장, 로사 피로치 COO 등 주요 인사와 소통하며 2028년 포럼 유치 관련 사항과 방문 일정을 협의했다.

대표단은 롬바르디아 주정부와 롬바르디아 산업연맹, 밀라노·롬바르디아 지역 경제 단체 아솔롬바르다·예스밀라노·밀라노 앤 파트너스 관계자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철강 산업의 저탄소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추진하는 포항의 산업 현황과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포항국제컨벤션센터(POEX) 등 마이스 산업인프라를 소개하고, 2028년 WMF 유치와 관련해 협력을 요청했다.

롬바르디아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롬바르디아 산업 연맹과 아솔롬바르다·예스밀라노·밀라노 앤 파트너스 관계자와 산업계 네트워크를 연계한 마이스·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대표단은 유럽 최대 컨벤션센터인 알리안츠 미코도 방문해 대규모 국제 회의 유치·운영 경험과 친환경, 접근성, 서비스 품질 관리 전략을 살폈다.

이상현 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WMF 재단과 꾸준히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밀라노 현지 주요 기관과의 면담이 성사됐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WMF 재단·현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포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부산시는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부산관광공사와 26~28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에서 '제2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GCT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서 세계 도시관광 혁신 논의

16개국 31개 도시 대표단 참석
市, 지속가능 관광 협력 모색

세계 16개국 31개 도시의 관광 관계자들이 부산에 모여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도시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26~28일 사흘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등에서 '제2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GCT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컬투어리즘: 도시경제와 관광혁신의 연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31개 도시 대표단과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관광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기조세션에서는 로컬투어리즘과 디지털 혁신이 도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고위급 정책세션에서는 부산의 스마트관광과 디지털 혁신을 비롯해 산살바도르의 지역경제 상생, 마추픽추의 지속가능관광, 콜롬보의 도시 브랜딩 등 각 도시의 관광정책과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20개 도시 시장단이 참여하는 시장회담에서는 '2040 지속가능 도시관광 공동비전'을 선언한다. 또한 관광의 질을 강조하는 '굿투어리즘(Good Tourism)'을 비롯해 해양관광, 웰니스와 지역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 모델, 청년의 관광산업 진출 등을 주제로 한 세션도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제 원자력 수출·안전 콘퍽스, 경주서 개막

국내외 77개 기업·기관 참여

경북 경주 하이코에서 27일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퍽스(NES)'가 개막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을 이끌다'를 주제로 사흘간 계속될 예정이다.

국내외 77개 기업과 기관이 182개 부스에 참여하여, 원전 건설과 해체, 정비·안전, 발전 기자재, 설계·연구 등 원자력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선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 17개국 50개 업체 바이어가 이틀간 수출상담회(B2B)를 진행한다. 글로벌 원전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수출 협력 방안을 찾는다.

첫날 세계원자력협회(WNA)와 뉴스케일파워, 아마존 등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 등을 의제로 컨퍼런스를 연다.

이어 다음날은 경주시와 유럽 원전지역 협력기구 등이 세계 원전도시 서밋(WNCS)을 통해 경험과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마지막 날에는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원전기업이 해외 원전 프로젝트와 글로벌 공급망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북도, 중국 APEC 연계해 관광객 유치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 성황리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선전·항저우·베이징과 산시성 오대산 일원에서 '2026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을 개최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협력 확대에 나섰다.

선전에서 열린 경북관광로드쇼에는 14만 명이 방문했다. 공사는 '오한(五韓)'을 주제로 한식·한복·한글·한지·K-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에게 경북관광을 알렸다.

선전·항저우·베이징에서는 현지 관광기관과 여행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도 열렸다. 공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역사문화 관광자원, 특화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망을 넓혔다.

설명회에는 광둥성관광협회, 선전시문화방송체육관광국, 선전시여행업협회, 저장성여행사협회, 중국여행사협회, 베이징시문화관광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사는 광둥성관광협회와 관광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산시성 오대산풍경명승구 관리위원회와 세계유산을 활용한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경북과 오대산의 역사·불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관광교류와 공동 홍보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경주 APEC으로 높아진 경북의 국제적 인지도를 2026년 중국 선전 APEC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김진곤 기자

고양 소상공인·시민 잇는 상생한마당 성료

판로 확대와, 지역 소비 촉진

고양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2026년 고양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이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고양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2026년 고양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이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고양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판로 확대와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24일 열린 기념식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과 지역 소상공인, 시민들이 참석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참여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관계자들은 부스를 찾아 제품과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행사장에는 총 100동 규모의 부스가 설치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판매하는 공산품과 수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홍보·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주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한마당이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개척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접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이 스스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준공

김해시는 지난 23일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행복누림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해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주민위원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협약에 따른 상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해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87억원을 들여 연면적 2033㎡,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행정 서비스와 문화·복지·체육 기능을 모은 복합 공간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사천시

상품권 캐시백 15%로 확대

사천시는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혜택을 최대 15%로 늘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에는 기존 혜택에 5%를 추가 적립한다. 시는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역 상권 지원을 위한 국가 단위 행사로 진행된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카카오톡 통해 도민 의견 청취

경남도는 26일부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 홈 화면에 '모바일 열린도지사실' 연결 메뉴를 새로 둔다고 밝혔다. 도민은 한 채널에서 도정 소식 확인과 문의·상담, 정책 제안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공식 카카오톡 채널은 도정 소식과 정책 정보를 알리는 창구로, 경남 모바일 열린도지사실은 민원 상담과 도민 의견을 받는 별도 창구로 운영됐다.

개편 뒤에는 공식 카카오톡 채널 홈 화면에서 모바일 열린도지사실 메뉴를 눌러 도정 문의와 상담, 정책 제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인천시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인천광역시가 민간 차원의 외교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민명예외교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명예외교관의 국제적 소양과 민간외교 능력을 높이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해 현장에서의 소통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남성복 줄이고 럭셔리·맛집 늘리고”… 쇼핑 풍경 달라진다

백화점 3사 공간 혁신 경쟁
주요 점포 남성복 면적 40% 감소
신진 K패션·체류형 콘텐츠 확대

롯데, 리뉴얼·타운화 전략 추진
신세계, 상권별 특화 전문관 강화
현대, K컬처·미식 콘텐츠 확대



백화점 3사가 차별화된 브랜드와 체류형 콘텐츠를 앞세워 점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백화점의 공간 전략이 바뀌고 있다. 전통 남성복 브랜드가 차지했던 자리를 수입 럭셔리와 신진 K패션 브랜드, 식음료(F&B) 콘텐츠 등이 대체하면서다.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중심의 구매 행태 확산으로 기존 남성복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백화점들은 차별화된 브랜드와 체류형 콘텐츠를 앞세워 점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의 남성복 매장은 축소되는 추세다. 상위 15개 주요 백화점의 전통 남성복 매장 면적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과 아울렛을 아우르는 주요 남성 캐릭터캐주얼 브랜드 매장만 해도 최근 수년 새 100여 개가 자취를 감췄다.

특히 백화점·아울렛 입점 비중이 높은 주요 남성 캐릭터캐주얼 브랜드들의 총 매장 수가 수년 사이 20% 이상 급감하는 등 축소세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주요 점포에서 남성복 조닝 개편이 이어지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과 현대백화점 본점은 기존 신사복·캐릭터·어덜트 남성복 중심의 매장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더현대 서울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도 일부 전통 신사복 브랜드만 남기는 등 남성복 매장 구성을 조정했다. 롯데백화점 본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대구점·대전점 등 주요 점포에서도 기존 남성복 브랜드의 입지를 줄이거나 조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백화점 3사는 점포별 특성에 맞춘 리뉴얼과 상품기획(MD) 개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럭셔리 브랜드부터 젊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K패션·뷰티·식음료 콘텐츠까지 매장 구성을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8월 노원점의 전관 리뉴얼을 마무리했다. 전체 영업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3만3000㎡를 새롭게 단장하고 식품·패션·뷰티 등 주요 상품군을 개편했다. 인천점도 럭셔리·키즈관 등을 재정비해 지난 5월 그랜드 오픈했다.

롯데백화점은 ‘타운화 전략’ 및 체류형 공간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인천점을 세 번째 ‘롯데타운’으로 집중 육성한다. 청량리점 신관 개점과 강남점 리뉴얼을 추진하며, 강남점은 MZ세대 특화 브랜드 및 체류형 공간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점, 본점, 잠실점까지 단계적 리뉴얼을 이어간다.

신세계백화점은 상권 맞춤형 전문관을 강화한다. 대구점(해외 디자이너 전문관), 사우스시티점(스포츠 전문관) 등 상권별 전문관을 선보인 신세계는 하남점 여성패션 전문관과 천안아산점 K-패션 전문관(하이퍼그라운드)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기존 남성복 조닝 경쟁력이 약화된 점포에 대해서도 브랜드 구성 및 공간 활용도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MZ 세대와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공간 혁신에 나선다. 더현대 서울을 중심으로 K-팝·뷰티·푸드 팝업스토어를 지속 배치해 글로벌 MZ세대를 끌어들인다. 무역센터점은 10층 식당가에 이탈리안 그로서란트 ‘이탈리’를 선보이는 등 다이닝·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재정비해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 동선을 쇼핑과 연계하고 있다.

백화점의 공간 재편은 단순한 브랜드 교체를 넘어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브랜드 경험과 식음료,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고객이 직접 점포를 찾을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전통 남성복의 입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백화점들이 어떤 콘텐츠로 빈자리를 채우고 이를 매출과 재방문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점포 경쟁력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전통 남성복 브랜드의 입지 축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백화점도 상품 판매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럭셔리와 신진 패션, F&B 등을 결합해 고객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비비고로 한식 매력 알린다

한식페스타서 만두·김치 등 선봬
시식·딱지치기로 방문객과 소통
K-푸드 글로벌 성장 방향 제시

CJ제일제당이 한식의 날을 기념해 열린 ‘2026 한식페스타’에 참여해 비비고 브랜드와 글로벌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한식페스타’에서 비비고 부스를 운영하고 한식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식의 날인 10월 24일을 기념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것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

CJ제일제당은 ‘Iconic Korean Flavor, bibigo’를 주제로 만두와 김치, 햇반, 라면, K-소스, 냉동김밥 등 주요 제품을 선보였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와 딱지치기 등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2026 한식페스타’에서 비비고 부스를 운영했다. /CJ제일제당

딱지치기 참가자에게는 신제품 비비고 김나쵸와 김팝콘을 증정했다.

한식 컨퍼런스에서는 김숙진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실장이 ‘세계 시장에서 한식의 브랜드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비비고가 한식의 맛과 가치를 해외 시장에 알리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온 과정과 브랜드 전략, 향후 방향성을 소개했다. 이어 토론 패널로 참여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행사 참가 기업 중 유일하게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차별화된 K-푸드 제품과 콘텐츠를 통해 한식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온스타일, 라비앙 뷰티 최대 75% 할인

미백·두피케어 앰플 신상품 공개

CJ온스타일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브랜드 ‘라비앙’과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라비앙은 CJ온스타일 뷰티 카테고리에서 재구매율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인기 브랜드다. 행사 기간 주요 상품을 최대 7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10% 적립과 7% 카드 할인에 브랜드찜 고객 대상 5% 쿠폰, 롤렉스 및 샤넬 등 4억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신상품 공개도 함께 진행한다. 26일 모바일 라이브 ‘겟잇뷰티 스페셜’에서 미백 앰플을, 29일 ‘매드딜’에서 두피케어 앰플을 각각 처음 선보인다.

미백 앰플인 ‘TXA100 멜라클리어 인텐시브 프로그램’은 트라넥사믹애씨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을 활용한 4주 피부 관리 프로그램이다. 두피케어 앰플 ‘스칼프 이지에프 액티베이팅 솔루션’은 자운영추출물과 EGF 코팅 스피큘, 성장인자 복합체 등을 적용한 신상품이다.

CJ온스타일은 이번 행사를 위해 TV라이브 방송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 편성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TV라이브에서는 27일 핑크콜라겐 앰플, 31일 DNA 에센스, 다음달 1일 미라클 스핑고좀 크림을 운영한다. 특히 DNA 에센스는 올해 단 한 번만 선보이는 구성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농심, 신라면으로 美 현지 미식시장 공략

출시 40주년 맞아 LA 미식 행사 참가
현지 유명 셰프와 협업 메뉴 2종 공개

농심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 셰프와 협업해 신라면의 미식 콘텐츠를 확대했다. 출시 40주년을 맞아 현지 미식 행사에서 신라면을 활용한 협업 메뉴를 선보이며 미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농심은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미식 행사 ‘101 베스트 레스토랑 인 LA’에 참가해 신라면 40주년 기념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LA타임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한국 식품기업으로는 농심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농심은 LA 한식 레스토랑 페릴라 LA(Perilla LA)의 김지희 오너 셰프와 협업해 신라면을 활용한 메뉴 2종을 선보였다. 페릴라 LA는 LA타임스가 선정하는 ‘LA 최고 레스토랑 101곳’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이름을 올린 곳이다.

협업 메뉴는 문어와 구운 토마토를 곁들인 ‘신라면 오리지널’과 부라타 치즈, 김을 더한 ‘신라면 로제’다. 신라면의 매운맛과 감칠맛에 셰프의 조리법을 접목해 기존 라면과 차별화한 요리를 제안했다.

행사장에는 한국적인 분위기의 시식 공간과 대형 신라면 패키지, 40주년 기념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존도 마련했다. 농심은 현지 셰프와 미식 관계자들에게 신라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가능성을 소개했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 현지 유명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신라면의 새로운 요리 가능성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식문화와 어우러지는 신라면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다이소몰

“겨울 준비 한자리에” 방한·뷰티 신상품 800종

30일까지 ‘다이소데이’ 기획전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이 겨울철 의류와 방한용품, 뷰티 신상품 등을 한데 모은 기획전을 진행한다. 아성다이소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다이소몰에서 ‘다이소데이 신상 겨울준비템’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이번 기획전에서는 최근 출시한 브랜드 상품과 겨울 패션·방한용품 등 800여종을 선보인다. 신규 브랜드와 상품을 소개하는 ‘특별 입고’ 코너에서는 뷰티 브랜드 더랩 바이 블랑두의 ‘클리어 히알 속광 라인’과 향기 전문 브랜드 데일리콤마의 ‘아로마 모이스처 라인’을 판매한다. 발효 홍삼 성분을 내세운 다나한 본연고 홍삼초 라인과 건강식품 브랜드 자연관 등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百, 캐릭터 상품 인기 타고 매출 ‘쑥’

관련 매출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증가

신세계백화점이 인기 캐릭터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콘텐츠를 확대하며 젊은 고객 공략에 나섰다. 관련 매출이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글로벌 완구·피규어와 캐릭터 굿즈를 한데 모은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글로벌 완구·피규어 브랜드 ‘블로키(Blokees)’와 캐릭터 굿즈 전문숍 ‘하비소울(hobby__soul)’이 참여하는 ‘블로키X하비소울 두근두근 캐릭터 페스타’를 진행한다. 약 950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블, 스타워즈, 포켓몬스터, 나루토 등 50여개 글로벌 IP를 활용한 피규어와 짱구, 산리오, 스펀지밥, 하츠네 미쿠, 미니언즈 등 국내외 인기 캐릭터 상품을 선보인다. 강남점 팝업에서만 판매하는 블로키 하츠네 미쿠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한정판과 블로키 에반게리온 액션에디션 TV판 신상품도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1월 3일까지 강남점 센트럴시티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 글로벌 완구·피규어 브랜드 ‘블로키(Blokees)’와 캐릭터 굿즈 전문숍 ‘하비소울(hobby__soul)’이 참여하는 ‘블로키X하비소울 두근두근 캐릭터 페스타’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도 운영한다. 매장 입구에 캐릭터 포토존과 대형 입체 피규어를 설치하고 프라모델과 굿즈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1회 1만원에 참여할 수 있는 꽝 없는 랜덤 뽑기 이벤트와 구매 금액에 따른 사은 행사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스마트병동부터 혈당 관리까지… 제약사, 디지털 전환 가속

대웅제약, 인공지능 병상 관리 공급
동아에스티, AI 보행분석 도입
HLB, 일상 속 혈당 관리 공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통적인 의약품 제조·판매 영역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까지 전방위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기 보급 및 진단과 병원 내 스마트병동 구축부터 일상 속 홈케어, 만성질환 관리까지 의료 전주기를 아우르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 실적 성과까지 기록하고 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은 지난해 1분기 112억원에서 2분기 124억원, 3분기 128억원, 4분기 146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1분기 170억원, 2분기 1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핵심 사업은 씨어스테크놀로지와 협업한 인공지능 병상 관리 시스템 '씽크'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씽크' /씨어스테크놀로지

공급이다. 대웅제약은 씽크를 2026년 10월 기준 이미 전국 218개 의료기관, 누적 2만 54병상에 진출시키며 스마트병동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남부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의 7개 병동 342병상에도 추가했다. 아주대병원은 향후 11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를 시작으로 응급·간호간병통합병동까지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진단부터 홈케어까지 전주기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계열사 엠서클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웰체크'를 확산시키고, 웨이센(진단), 퍼즐에이아이(병원 효율화), 아크(홈케어) 등 각 분야 전문 기업들과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도 근골격계 진단 영역 개척에 나서며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구체화한다. 지난 20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티드와 인공지능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뉴로게이트는 신발 착용 스마트 인솔을 통해 환자의 보행 주기, 지면 접촉 시간, 압력중심 이동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신체기능검사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고가 장비나 넓은 공간 없이 진료실에서 손쉽게 신체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 척추·관절 수술 전후 환자 관리 및 고령자 낙상 위험·근감소증 진단에 유용하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웨어러블 심전도 '하이카디', 망막 기반 질환 예측 소프트웨어 '닥터눈',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등을 지속 도입해 왔다.

동아에스티 측은 "동아에스티가 보유한 종합병원과 병·의원 영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뉴로게이트 공급을 늘리고 진단, 예측, 관리로 이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LB글로벌과 자회사 HLB라이프케어는 일상 속 웰니스 부문을 노린다. 초소형 연속혈당측정기(CGM) '피코링'을 필두로 혈당 관리, 식생활 관리 등을 차별화한다.

올해 3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피코링은 100원 동전보다 작은 크기와 각설탕 1개보다 가벼운 무게의 초소형 센서다. 15일간 1분 단위로 실시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HLB라이프케어는 인바디헬스케어와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를 전략적으로 맺고 체성분 분석 기기와 피코링의 혈당 데이터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HLB라이프케어는 지난달에는 식전 섭취용 '식전당부'와 저당 도시락 '밀당솥밥'을 선보였다. 혈당 측정에 그치지 않고 식생활 개선 수요를 충족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한 웰니스 브랜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의료 현장 효율성 제고, 환자 건강 증진 솔루션 등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자사 영업망과 유통 네트워크로 단순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술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광동제약 'AI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AI 연구개발 전사 통합 관리
신소재 발굴·수요 예측 활용

광동제약은 사내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인 'AI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광동제약 AI센터는 이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계기로 그간 개별 부서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AI 과제를 공식 연구개발(R&D) 체계 안에서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됐다. 이는 일회성 신기술 도입을 넘어, 전문 연구와 현장 실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디지털 전환(DX)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I센터는 사업 부문별 규제 대응 체계 구축, 기능성 신소재 발굴, 정밀 수요 예측 모델링을 비롯한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조와 물류, 유통에 이르는 다양한 실무 환경에 인공지능 보조 기술을 접목하는 실용 연구를 총괄한다.



광동제약 AI센터

또한 현업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수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AI크루'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다진 광동제약 생산본부 품질부문은 올해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경기도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 본선 빅데이터·AI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하며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임직원의 일상 업무 환경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인프라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전사 협업 도구로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를 도입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 활용 환경을 구축했으며, ▲사내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시스템 전환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협업 효율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승재 광동제약 AI센터장은 "이번 AI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제약·식음료 비즈니스 전반에 AI 기반 데이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발전하는 AI 기술과 현장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실무 적용 역량을 결합해 전사 차원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美 대형 의료기업과 공급 계약

오리지널 제치고 단독 공급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의 단독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신규 제품의 미국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이달 초 현지 대형 의료기업과 옴리클로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 및 앱토즈마 전 제형(IV·SC)에 대한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그룹 산하에 다수의 대형 병원과 보험사,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 환급과 의료기관 공급을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채널이다.

두 제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치고 단독 공급 제품으로 선정됐으며, 이달부터 제품 공급과 보험 환급 적용이 시작됐다. 셀트리온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 의료기업 네트워크에 진입하면서 미국 내 처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옴리클로'

계약에 따라 옴리클로와 앱토즈마는 해당 보험사 처방집의 선호의약품(Preferred Drug)으로 등재되고 산하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 가입자는 의료진의 처방을 거쳐 보험 혜택이 적용된 두 제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세경 기자

알테오젠, ADC 피하주사 전환 연구 공개

투약 편의·안전성 개선 기대

알테오젠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 'ESMO Congress 2026'에서 ALT-B4를 활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의 피하주사 전환 연구 결과를 담은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ADC는 암세포를 표적하는 항체에 강력한 항암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항암제다. 높은 치료 효과로 인해 차세대 항암제로 기대 받고 있고, 2024년 120억 달러 규모였던 관련 시장은 오는 2032년까지 570억 달러로 큰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강력한 항암 약물을 사용하는 만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며, 정맥주사에 따른 투약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알테오젠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자체 HER2 표적 ADC인 ALT-P7에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적용한 피하주사를 동물실험을 통해 약물 흡수와 내약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실험 결과, ALT-B4는 용량 의존적으로 ADC의 흡수를 촉진했으며, IV 투여와 유사한 생체이용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ALT-B4를 혼합 투여했을 때 약물을 표피에서 균일하게 분산시켜 주사 부위의 피부 손상도 감소한 결과가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ADC 치료제의 전신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도 확인됐다. ADC를 IV로 투여 시 호중구(Neutrophil) 감소와 간독성이 높이지는 반면, ALT-B4와 함께 피하주사된 결과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낮춰 혈액학적 안전성 개선 효과를 보였다. 피하로 투여한 ADC는 정맥 투여보다 최고 혈중 농도(Cmax)가 낮게 나타나, 전신 독성에서도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알테오젠은 이번 ESMO 2026에서 유럽 및 글로벌 종양학 전문가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ADC 피하주사 개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태연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당사의 파트너사가 ALT-B4를 활용한 피하주사 제형 ADC를 임상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학회를 통해 ADC 분야에서 ALT-B4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과 개발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뼈말라' 열풍에 젊은 여성 뼈 건강 비상

이화의료원 "이상 징후 간과 말아야"

최근 극단적인 체중 감량으로 마른 체형을 좇는 이른바 '뼈말라'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나친 다이어트가 저체중과 영양 불균형을 유발해 젊은 여성의 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전문의 경고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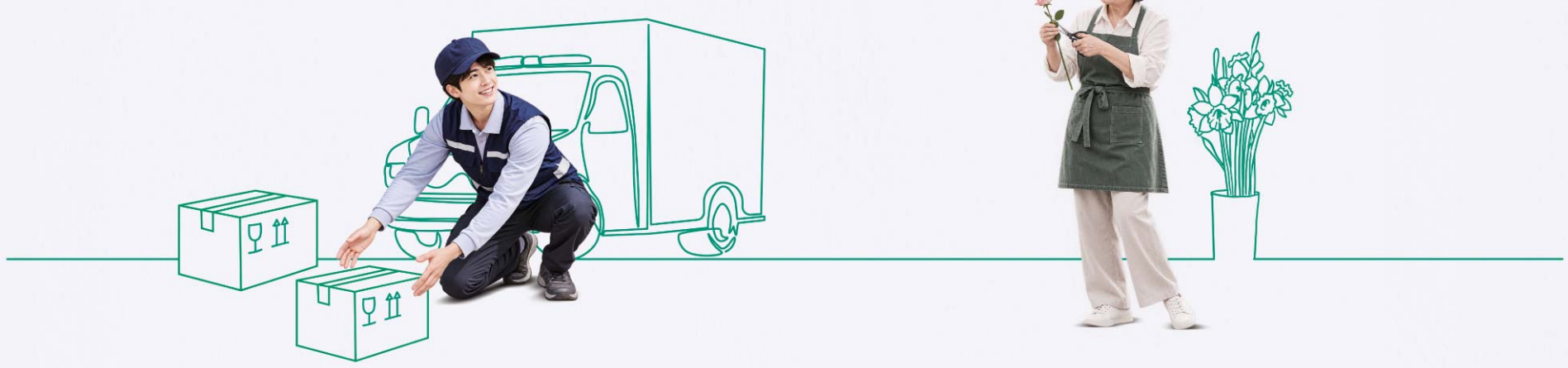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전문의들은 저체중이 오래 지속되거나 무월경, 월경 불순,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여성도 포함된다.

실제로 골량은 성장기,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젊은 시절 충분한 골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된다. 골량 형성과 유지를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이유다.

이대목동병원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는 "젊은 여성의 골밀도가 또래보다 낮게 나왔다면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넘길 일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호"라며 "젊은 여성의 뼈 건강은 체중뿐 아니라 영양 상태, 월경과 호르몬, 운동량, 기저질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 양이 줄고 미세구조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다. 폐경 전 여성은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한 'Z-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Z-점수가 -2.0 이하이면 '연령 기대치보다 낮음'으로 분류하며, 골절 병력과 월경 상태, 관련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종합해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한다. /이청하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산은,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산업은행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은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금융의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한화큐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 인증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최근 판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내 공정개발실·소재개발실·분석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수진 한화큐셀 판교R&D센터장(오른쪽)과 직원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명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큐셀



기보, '혁신전략연수' 실시… 에스디티 등 방문

기보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디캠프 마포 등에서 '2026년 혁신전략연수'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선 ▲혁신기업 탐방 ▲친환경 기술 전시 관람▲혁신 특강 ▲자율 토론 등을 진행했다. 기보 김현 이사(앞줄 가운데)가 에스디티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기보



효성그룹, 장애아동·임직원 가족여행 지원

효성그룹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2026 효성·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아동 가족과 임직원 가족은 한 조를 이뤄 미디어아트 관람, 물놀이, 놀이공원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효성그룹



하이트진로, 제주 해안 네번째 환경정화활동

하이트진로는 지난 22일 제주 닭머르해안에서 올해 네번째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하이트진로 본사와 제주지점 임직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안가와 주변 구역에 버려진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했다. /하이트진로

홍라희 명예관장, 40년간 나눔…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리움미술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소장품 기증
해외 순회전 지원·의료 분야 기부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소장품 기증에 이어 해외 순회전을 지원하는 등 40년 넘게 나눔을 실천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홍 명예관장은 26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2024년 적십자 인도장 금장에 이어 문화와 의료, 복지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은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홍 명예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은 2021년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이 선대회장의 소장 미술품 2만 3000여점을 가족 공동명의로 국가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박물관 전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밥상' 전시에도 이 선대회장이 기증한 '동의보감'이 전시됐다.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로,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다룬 자료로 소개됐다.

소장품 기증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박물관 전시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2016년 12월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전시실을 개편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홍 명예관장은 기증품의 해외 전시도 지원했다. KH컬렉션 해외 순회전의 기획과 진행을 지원했으며, 스미스소니언과 영국박물관에서 삼성 주최로 열린 갈라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이 회장 등 가족과 함께 현지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미술을 소개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해외 특별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을 시작으로 시카고미술관과 영국박물관을 순회하는 전시다.

유족들의 사회 환원은 문화 후원뿐 아니라 의료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홍 명예관장 등 유족은 이 선대회장의 유산 중 1조원을 의료 분야에 기부했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은 소아암·희귀질환 환아 지원에 배정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기념식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기부금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병원의 의료진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지원 사업단'이 출범했다. 나머지 7000억원은 국립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연구·치료 인프라 구축 등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에 투입됐다.

홍 명예관장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기부도 지속했다. 2016년 누적 기부액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3호 창립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레드크로스 아너스 10억 클럽'에 헌액됐다.

이 밖에 청소년행복재단에 10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용산복지재단에도 3억 5500만원을 전달하며 아동·청소년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했다. 종교계에서도 전통 불교문화 계승과 원불교·가톨릭의 문화유산 보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에 기부를 이어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굴

엠필즈 페스타&발명의 날

이규석 사장 참석… 임직원 격려
SW 등 미래차 원천기술 확보 속도

현대모비스가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와 제품 개발로 연결하며 미래 모빌리티 원천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 기술연구소에서 '2026 엠필즈 페스타 & 발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내 아이디어 플랫폼 '엠필즈(M. Fields)'에는 올해 전동화와 전장, 샤시·안전, 소프트웨어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약 6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내 추천과 관련 부서 검증을 거쳐 본선에 오른 5개 우수 아이디어가 공개됐다.

최우수상은 주변 차량의 상대 속도를 색상으로 표시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AVN-AR 운전 지원시스템'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주행 상황에 맞춰 교통법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AR 교통법규 안내 시스템'이 선정됐다. 운전자 관점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23일 '2026 엠필즈 페스타 & 발명의 날' 시상식에서 우수 아이디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현대모비스

이날 행사는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우수 특허와 직무발명, 최우수 디자이너, 지식재산(IP) 공로상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양성운 기자 ysw@

오뚜기함태호재단, 제34회 학술상 시상

이해정 교수에 상패·상금 전달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제34회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이해정 교수는 국민 맞춤형 건강 증진 연구와 국가 영양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재단은 2009년 오뚜기 함태호 학술상을 제정하고 한국식품과학회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과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왔다. 올해부터는 한국영양학회를 추가해 시상 범위를 식품·영양 분야 3대 학회로 확대했다. 이번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34명이 학술상을 받았다.


오뚜기함태호재단 함영준 이사장(왼쪽)과 가천대학교 이해정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뚜기

/신원선 기자 tree6834@

SK텔레콤, 'AI 거버넌스 리포트' 발간

AI 중심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AI 거버넌스 원칙과 책임체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주요 성과를 정리한 'AI 거버넌스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 동안 AI 거버넌스를 실천해 온 SK텔레콤의 경험과 성과가 담겼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HD현대오일뱅크, 농가 쌀 소비 촉진 나서

내달 23일까지 '햅쌀드림밥' 행사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 지역 햅쌀로 만든 즉석밥을 고객에게 증정하며 지역 농가와 상생을 이어간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행사 참여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보너스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햅쌀드림밥' 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 기간 주유소에서 4만원 이상 주유하거나 LPG 충전소에서 2만원 이상 충전한 뒤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하면 경품 추첨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 여부는 영수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경품은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인 사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부산지사 본부장 △부울경본부 김재남

◆**동아쏘시오그룹** 〈승진〉 ◇동아오츠카 △사장 김준하 ◇한국신동공업 △사장 김오경

◆**기획예산처** ◇국장급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봉용

◆**KBS** ◇본사 △인사청문회준비단장 서용하

◆**신아일보** △생활유통부장 추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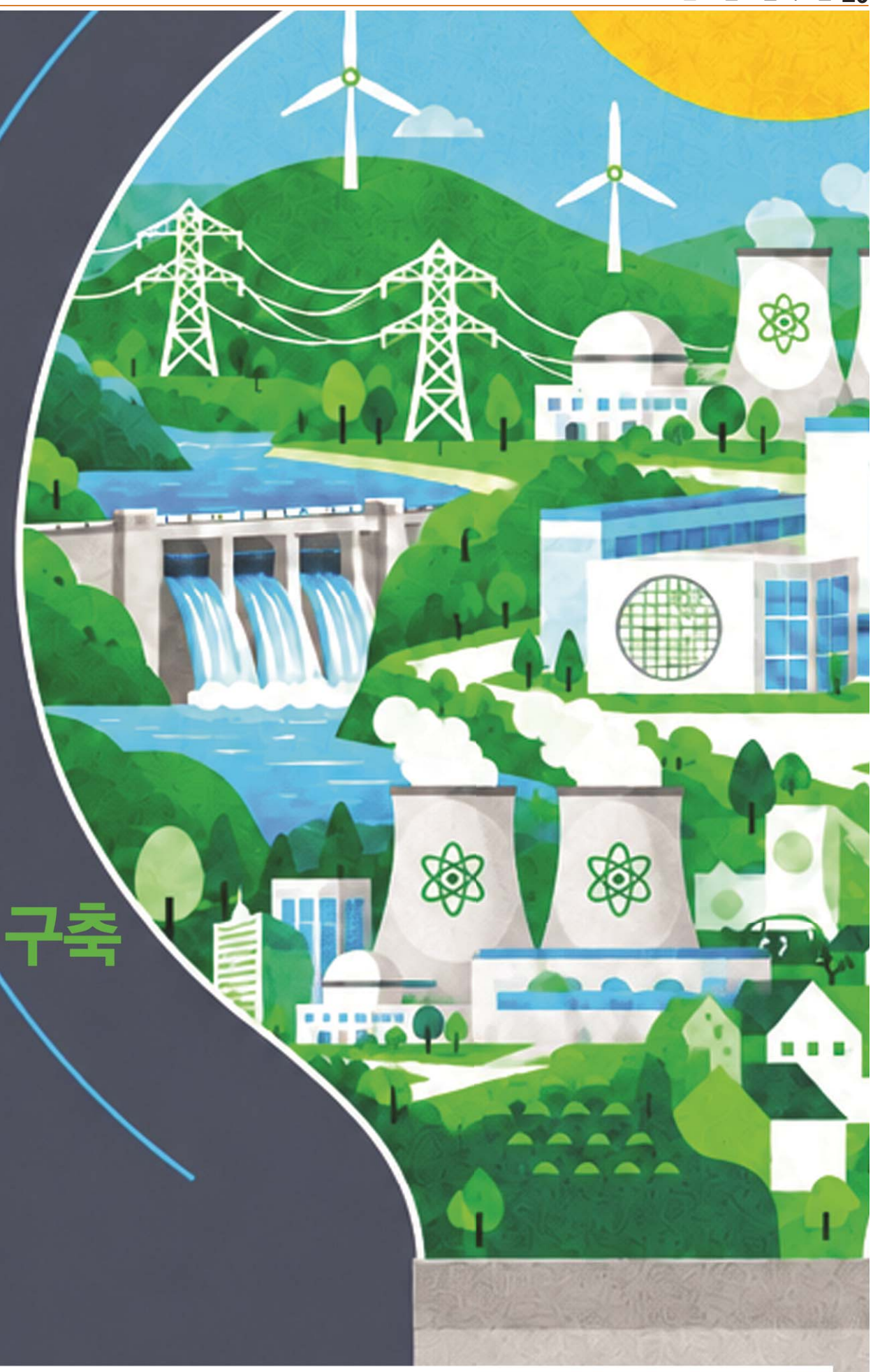
◆**EBN** △대표이사 사장 김영락

부 음 ▲한성수씨 별세, 주명숙씨 남편상, 한수아(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정책보좌관)·한수영(진주저축은행)씨 부친상, 정홍규(전 KBS 방송뉴스주간)·김태영(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정책단장)씨 장인상=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8일.

▲백태남씨 별세, 강민구(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씨 장모상=경북 구미시 선기로 155-23 아성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8일. 054-442-5555.

▲이진행씨 별세, 김유일(코람코자산운용 부회장)씨 모친상=안동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8일. 054-850-6440.

▲이석주씨 별세, 여운숙씨 남편상, 이승익·이승원씨 부친상, 곽정환(태화트랜스 전무이사)씨 장인상, 곽주하·곽주원씨 외조부상=26일,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28일. 02-2262-4820.



대체불가 K-에너지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2026년 11월 10일(화) 14:00~16:3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메트로경제)
후　　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록 참가비 무료
문　　의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연사 소개



이종민
- 한전기술지주 대표
- 전 SK텔레콤 부사장



이태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곽은섭
-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이상준
-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제훈
-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개막식	14:00~14:20	〈축사〉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4:40	**이종민** 한전기술지주 대표
강연	14:40~15:00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정책연구실장
	15:00~15:20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
	15:20~15:40	**이상준** 국립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15:40~16:00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책임
질의응답	16:00~16:30	언론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etro · metro경제

기후시민은 지친다



서 선 미의 기후에세이

나는 자랑스런 기후시민이다. 10월 24일 기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238만4708명 중 한 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이라는 수고를 더해 기후시민증을 받았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시민의 의지가 깃든 숫자를 보면, 그들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흡족하다.

시민증을 받은 뒤, 기후시민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살폈다. 참여기업 페이지에 들어가 각 기업이 주도하는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매뉴얼도 꼼꼼히 읽었다. 기업마다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을 했다. 기후시민증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자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벅찬 마음으로 시작한 나의 수고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참여기업에서 포인트를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할까. 모 유통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 그곳부터 앱을 열었다. 간편 인증 회원이라 통합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했다. 가입을 마치고 내 정보의 탄소중립포인트 관리 메뉴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미 가입한 기후시민인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한숨을 내쉬고 앱을 닫았다.

참여기업 목록을 내려가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은행, 통신사로 이어진다. 가장 많은 방식은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기업마다 앱을 깔고, 메뉴를 찾아 들어가 본인 인증하는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매뉴얼도 내려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기찼던 기후시민도 지치게 된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은 정부에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유인 방안과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문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사각지대를 좁히는 일은 정책의 몫이다.

촉구할 일은 또 있었다. 그 사이트의 탄소중립포인트 가공식품 페이지는 적립 대상인 친환경 상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상품으로 설명한다. 하얀 설탕, 봉지 라면, 김치전이 왜 친환경 상품으로 인증받았는지 알려면 부처에 확인해야 하는 걸까? 제품만 봐서는 왜 친환경인지 알 수 없다. 기후시민에게는 자신의 실천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정부도 기업도 기후시민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 의무가 아닌 선택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탄소중립에 한 걸음을 내딛는 기업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자사 앱 이용자를 늘리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기후시민은 포인트만 바라고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조금은 늦추자는 명징한 각오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는 공급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기업의 이점이 줄어 참여가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시는 2017년 '벨라 모사' 프로젝트에서 시민의 친환경 이동을 앱으로 기록하고, 제휴업체 80여 곳과 함께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업과 상점은 보상을 제공하고, 시민은 친환경 이동을 실천하며 혜택을 얻는 구조였다. 우리도 이 모델을 친환경 이동에서 친환경 소비로 확장할 수 있다. 또 여기에 기업에는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설계를 보태는 것은 어떨까.

기후위기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시민이 되어 그 시대를 건너가는 새로운 가치를 얻고 싶다. 이 순수한 바람은 의지마저 소진시키는 '수고'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정부에 묻고 싶다. 선한 기후시민이 자발적 참여 기업과 함께 쉽고 편하게, 자주 기쁘게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호황 뒤에 가려진 그늘



기자 수첩

안 재 선 〈금융부〉

세상은 호황이라고 떠들썩하다. '반도체', '경제 도약', '국민 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상승' 등의 기분 좋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하고, 국민 소득이 4만 달러가 넘을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 때문이다.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호황의 온기가 모두에게 닿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7조원을 넘어섰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과급을 누리지만, 다른 누군가는 한 달 치 카드값조차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결제를 미루고 있다. 같은 경제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호황이, 누군가에게는 버거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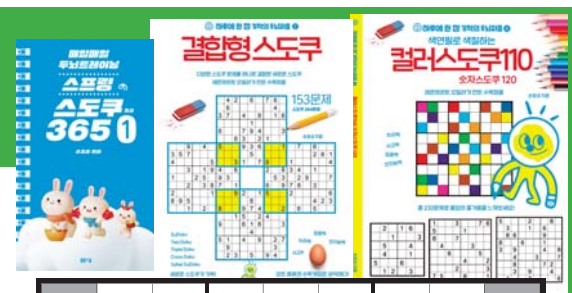
문제는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데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리볼빙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다른 카드사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더 높다. 당장의 결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월한 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다음 달에도 카드값을 온전히 갚지 못하면 이월 잔액과 이자 부담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한 달을 버티기 위해 미룬 빚이 다음 달의 생계까지 압박하는 셈이다.

그늘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까지 드리워지고 있다. 본지가 대출 중개 플랫폼인 핀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전체 대부업 한도 조회수는 지난 7월 1만7494건에서 8월 1만6813건으로 줄어들더니 9월 1만9001건, 10월 초 2만8219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500~600점대였으며, 실제 대출 잔액은 평균 10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반도체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지표상 호황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호황의 풍요가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그늘에 놓인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빚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면 결국 호황이라는 말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wotjs4187@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한 칸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7
	4							8
					3			
						7		9
6	3						8	4
1		8						
			3					
4							5	
5			9	1				

					5	9	1	
2	9			4		7		3
1		2						9
7						2		5
3		7		8			5	1
	2	6	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7	4	2	1	9	3	8	5
1	5	3	6	8	7	2	9	4
2	9	8	5	4	3	1	6	7
3	2	5	9	6	4	8	7	1
4	8	1	7	2	6	9	5	3
5	6	9	1	3	8	4	2	7
8	3	2	4	9	1	7	5	6
9	4	6	3	7	5	8	1	2
7	1	9	8	5	2	6	3	4

9	2	6	7	1	5	8	4	3
3	4	7	9	8	2	6	5	1
8	5	1	4	7	6	3	9	2
7	6	4	3	9	1	2	8	5
5	3	9	8	2	4	1	7	6
1	8	2	6	5	7	4	3	9
6	1	8	2	3	9	7	4	5
2	9	5	1	4	8	6	7	3
4	7	3	5	6	2	9	1	8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음 9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0년생**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니 어렵게만 됩니다. **72년생**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84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9년생 새 업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61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73년생** 독자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85년생** 주변에서 만나는 이성과의 반대가 심합니다.

50년생 의욕적으로 일에 임하세요. **6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4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63년생**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75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87년생** 이래 저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표창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76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8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53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쉬우니 음식을 조심하세요. **65년생** 말조심하세요. **77년생** 윗사람과의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89년생**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54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있으면 밀고 나가세요. **66년생** 윗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78년생** 평탄하고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90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55년생 소원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7년생**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됩니다. **79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6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68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0년생** 각종 분야에 노력을 닦아온 결실이 맺어질 때입니다. **92년생**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57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6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81년생** 명예와 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 이겠습니다.

58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0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82년생** 병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세요. **94년생** 각고의 노력 끝에 희망대로 소원이 풀리게 됩니다.

59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71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83년생** 사업을 크게만 벌리려고 하지 마세요. **95년생**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마세요.



김상회의 四季

활인검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칼을 휘두르듯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무장으로 칼의 달인이라는 뜻이다. 또한 장자의 대목에 보면 능숙한 백정이 칼을 잘 다루어 소뼈에서 살을 잘 발라내는 모습을 도인의 경지에 비교하는 대목도 보인다. 보통 '칼'하면 일단 겁부터 낸다. 사람을 살상하고 해치는 무기로서의 칼이 우선 연상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칼만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물품도 드물다. 무기로도 사용되지만, 종류도 다양하여 요리나 수술 집도에도 사용되는 등 의료용이나 조리 등 실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도구이다. 소용되는 곳에 따라 살인 검도 되지만 활인검도 된다. 활인검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는 의미다.

칼인데 사람을 살린는 것이 모순된 의미 같지만 어떠한 도구이든 쓰임에 따라 기능을 달리함을 뜻하는 것이니 굳이 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모든 사물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을 강조하더라도 다룸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인이나 사냥꾼이 전쟁터나 사냥에 나갈 때 무기인 칼을 항상 꺼내 들고 다니지 않는다. 칼집에 넣고 있다가 필요한 적시에 휘두르는 것이다. 극도의 이익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마음 수행을 활인검으로 삼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회봉사나 보시나 기도 발원으로 활인검을 장착할 것이다. 때때마다 오는 초하루나 보름 기도 또는 요즘 같은 하늘이 열린다는 시월에 상달 기도를 올리면서 운기를 북돋우는 것으로 피흉취길의 활인검으로 삼아볼 수 있다.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면 칼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 마음을 잘 살피고 단련해볼 일이다. 화가 치성하면 주변 사람을 찌르고 베어 버리는 상처를 낸다. 도구로 쓰는 칼만이 칼이 아니다.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리하면 마음은 신기하게도 화의 바람이 누그러짐을 알 수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 정비에 4.8만 가구 짐 싼다 저렴한 전월세 사라질까 '우려'

사업시행인가 단계 구역 66곳
이주 본격화 전부터 전세값 오름세
용산·관악·영등포에 물량 몰려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오르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가 임대차시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저렴한 전·월세가 줄고 주변으로 이주 수요가 몰려서다. 이주 시기를 분산하고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서울시의 올해 6월 말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단계 구역은 66곳, 기존 가구는 4만8249가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향후 2~3년 안에 이주 단계까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한꺼번에 집을 비워야 하는 가구가 5만 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의 건축계획 등을 승인하는 절차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철거 등을 거쳐 착공으로 이어진다. 실제 이주 시점은 인허가와 구역별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비사업 이주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서울 전세가격 오름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6%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인 0.13%를 웃돌았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전세가 8.73%로 매매 8.63%를 앞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 지역에 몰리면 전월세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치구별 기존 가구는 용산구가 8336가구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6652가구, 영등포구 6215가구가 뒤를 이었다. 여기에 송파구와 서대문구까지 더하면 상위 5개 구의 비중은 65.8%에 이른다.

관악구와 서대문구는 최근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0월 셋째 주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1%, 서대문구는 홍은·남가좌동을 중심으로 0.24% 올랐다. 이들 지역은 서울대학교와 신촌 일대 대학이 자리해 대학생 수요도 높은 곳이다. 대학가 주변의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이 사라지면 청년 세입자는 더 비싼 집을 구하거나 학교에서 먼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

실제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집계된 기존 가구 중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이 전체의 59.4%를 차지한다. 함 랩장은 이들 지역에 단독·다세대·소형 연립주택이 모여 있어 저렴한 월세와 반전세 주택이 줄어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같은 생활권에서 대형 구역의 이주가 겹치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주 시기를 조율하는 협의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며 "전세임대·매입임대를 이주 시기에 맞춰 추가 공급하고, 전월세 매물, 거래량, 가격을 상시 점검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아파트값 부담?… 중형 오피스텔 거래 늘어

서울 전용 20~30㎡ 거래 31.6% 줄고
40~60㎡는 8.9% 늘어… 변화 조짐

서울 오피스텔 매매시장에서 작은 면적과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거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전체 거래가 20% 넘게 감소한 가운데 전용면적 20~30㎡ 소형 오피스텔 거래는 30% 이상 줄어든 반면, 40~60㎡ 중형 오피스텔은 오히려 증가했다. 가격 역시 넓은 면적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초소형 위주였던 오피스텔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서울 오피스텔 개인 매수 거래는 5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741건보다 21.6% 감소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20~30㎡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면적의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26건에서 올해 9월 223건으로 31.6% 줄었다. 전체 개인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0%에서 38.4%로 5.6%포인트(p) 낮아졌다.

반면 전용 40~60㎡는 같은 기간 90건에서 98건으로 8.9% 증가했다. 거래 비중도 12.1%에서 16.9%로 4.8%p 높아졌다. 서울 오피스텔 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중형 면적에서는 매수가 늘어난 셈이다.

전용 40㎡ 초과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개인 매수 581건 가운데 40㎡ 초과 거래는 163건으로 2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 22.8%보다 5.3%p 높아진 수치로,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실제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다만 이번 거래 변화가 아파트 수요의 오피스텔 이동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역별 오피스텔 공급 물량과 재고 면적 구성, 가격 수준 등에 따라서도 거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 네번째)과 이중근 유엔한국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유엔의 날 국경일 지정되면 건물 기증"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기념식 참석
"유엔 기구 유치 위한 건물 건립"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유엔의 날(UN Day)이 국경일로 지정되면,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건립해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유엔과 참전국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26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유엔한국협회와 외교부는 지난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76년 유엔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로 마련됐다.

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유엔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세대가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 시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직접 건립·기증해 유엔 기구들을 유치함으로써 은혜를 갚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상대원2구역 지연… DL이앤씨 실적 발목

공사비, 도급변경계약 등 갈등 지속
주택 매출 연간 목표 2.8조 어려울 듯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사 교체 논란에 이어 공사비 증액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 이후 DL이앤씨와 조합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사비와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규모 사업장의 착공 시점이 향후 주택사업 성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DL이앤씨는 공사비와 도급변경계약 등을 협의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공사 교체 논란을 겪으며 착공이 지연됐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와 GS건설 선정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7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속되는 갈등과 미뤄지는 착공은 증권사의 실적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대원2구역의 시공권 문제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DL이앤씨 별도 주택 매출의 연간 목표인 2조 8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현장의 착공 물량을 기반으로 상반기를 저점으로 매출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혜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상대원 착공 지연과 플랜트 현장 공정률 둔화, 자회사 DL건설의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해 3분기 연결 매출을 약 1조66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2.9% 줄어든 규모다.

DL이앤씨는 지난 10일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열어 새 단지명 '그라투스'를 제시하고, 3.3㎡당 699만원의 확정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전액 납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은 공사비와 마감재 수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DL이앤씨 제안서 검토 중간보고에서 "DL이앤씨가 조합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약서 문구는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철거공사비와 2단지 경계부 옹벽공사비 등 공사 범위와 산출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감재의 구체적인 제품과 사양을 확정하고, 공사비를 낮추거나 제시한 금액에 맞게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합 내부 갈등도 변수다. 일부 조합원들은 착공 지연과 협상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가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금융부담도 커질 수 있다. 착공과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이주비 대출과 사업비 이자가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낮춰 아낄 수 있는 금액과 사업 지연으로 늘어나는 이자를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DL이앤씨의 주택 부문의 수익성이 회복된 상황에서 향후 실적 개선을 위해 매출 성장의 가시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상대원2구역 착공 여부와 플랜트·데이터센터 수주 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성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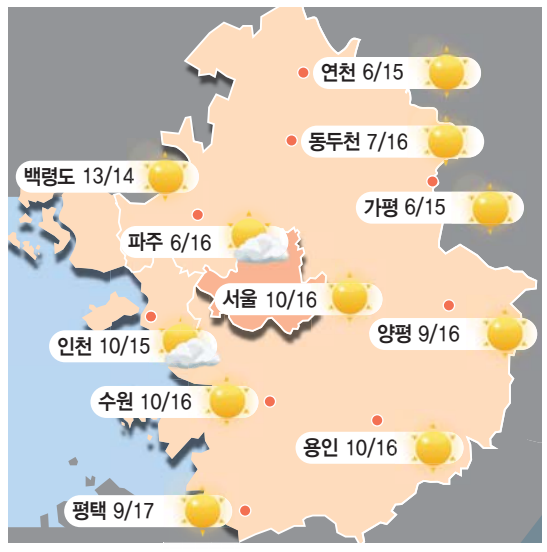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52 | 해짐 / 17:40

10월 27일(火) 음력 : 9월 17일

수도권 날씨 10~1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4선 성공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 51.79% 득표 /사진 뉴시스

▲세르비아 부치치 전대통령, 대학생 세력에 조기 총선 패배 인정

▲美유권자 69% "트럼프 행정부 부패 우려"…고물가 불만도

▲10개월 망명 생활 마친 마차도, 베네수엘라 귀국… 지지자들 환영

▲홍콩 증시, 中 정책 기대에 2거래일째 상승세… H주 0.18%↑

▲"美조선업 미래는 한국에"…미국 언론 WSJ 한국·한화오션 주목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1호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백화점 3사
공간혁신 경쟁
쇼핑 풍경 달라진다
L1

제약사
디지털 헬스
생태계 구축
L2



기부 넘어, 지역사회 변화로 상생 온기 채우는 '행복 에너지'

'얼마나 기부했는가'에서 '어떻게 살만해졌는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단발성 지원의 공식을 깨고, 에너지와 환경, 일자리를 잇는 촘촘한 상생의 온기를 지역사회 곳곳에 불어넣고 있다. '에너지 세이브', '스쿨 포레스트', 중장년 AI(인공지능) 일자리까지, 한난이 공기업의 업(業)과 지역의 니즈를 연결하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낸다.

한난은 올해 사회공헌 비전을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행복 에너지'로 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희망 에너지', '나눔 에너지'의 3대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과제를 운영한다. 각 과제는 공사 業(업) 연계, 지역발전,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사업 유형과 연결된다.



1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국지역난방공사

단발성 지원 깨고, 실질적인 변화 이끌어
난방비 지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마라톤 열고 참가비 전액 기부
초·중학교 생태숲 조성… 환경 교육 연계

지역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자금·자문 지원
대학생 멘토링 결합해 장학금·교육 제공
중장년 강사 양성…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전국 19개 지사, 지역 밀착형 맞춤복지 펼쳐

◆ 에너지 세이브 365… '난방비 지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우선 한난의 사회공헌 사업 철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은 '에너지 세이브 365'다. 2006년부터 이어온 '사랑 ON(溫) 난방비' 사업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올해부터 현금성 난방비 지원 중심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단열·창호·바닥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시공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도 함께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난은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 충북 청주시, 전남 나주시, 경남 양산시 내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개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에너지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복지'로 사업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국민의 달리기를 에너지복지 제고로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는 국민 참여와 에너지 복지를 연결한 대표 사업이다. 한난이 공식 후원하고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주최하는 기부 마라톤으로, 참가비 전액을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기기 지원과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참여 국민 모두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는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행사는 지난 9월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으며 약 4000명의 시민이 5km와 10km 코스에 참여했으며, 대회 홍보대사인 가수 션의 공연과 개회 선언, 가수 KCM의 축하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대회를 통해 약 1억7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회공헌의 수혜자를 지원 대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까지 참여 주체로 확장하면서, 취약계층 나눔과 에너지 효율 인식제고를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난 스쿨 포레스트… 도심 학교 생태숲을 '살아있는 환경교실'로

'한난 스쿨 포레스트'는 한난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 사회공헌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생태숲으로 조성하고 이를 교과와 연계해 학습 체험형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성남시 소재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위례해솔초등학교를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9월 9일 환경재단, 위례해솔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화해 10월 22일 '한난 스쿨 포레스트' 1호숲 조성 기념행사를 시행했다.

조성된 학교 생태숲을 활용해 학생들이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을 학습하는 교과 연계형 환경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생태 관찰, 숲 돌봄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 우리 동네 온기 가득…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 에너지·환경 문제 직접 해결

'우리 동네 온기 가득'은 한난 사회공헌 사업의 '지역문제 해결'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및 경영 자문을 지원하는 주민 체감형 사회공헌사업이다.

한난은 올해 사업 효과 및 확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별 지원 규모를 4개 사업 총 1.3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와 평가를 거쳐 탄소저감형 스마트팜 상토 개발, 폐플라스틱·폐자전거 재활용, AI 기반 냉난방기기 사후 관리 등 총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4개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사업 지원금과 경영 전문가의 맞춤형 사업 고도화 자문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연말 성과보고회에서 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전 과정의 고도화 자문과 점검 체계를 강화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재능 Dream 희망 장학금… 대학생의 재능을 지역아동의 교육기회로

'재능 Dream 희망 장학금'은 교육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기초학습, 적성교육,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면 한난이 활동을 이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처음 시행했다.

올해는 수도권 중심이던 활동지역을 경상권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멘토 43명을 선발했으며, 참여 대학생은 11월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65시간의 교육봉사를 수행한다.

특히 AI 기초역량과 친환경 인식 교육을 의무 과정으로 반영해 지역 아동에게 미래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한난 통합운영센터와 판교 열원시설 견학, 한난 채용 정보 제공 및 진로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과정을 실시해 참여 대학생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 취약 아동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사회경험을 제공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한난의 '지역사회 성장 지원'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 한난 AI 시니어 마스터… 중장년을 'AI 교육 수혜자'에서 'AI 강사'로

'한난 AI 시니어 마스터'는 직무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한난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특화 사업이다.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수요가 높아지는 사회 변화에 맞춰 중장년층을 AI 디지털 문해교육사로 양성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장년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역량을 다시 지역사회에 전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직무 개발과 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분들께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 전국 19개 지사가 만드는 '사회공헌'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직접 사업을 설계하는 지역 현장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 중이다. 명절에는 취약계층 지원 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복지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연결했다. '전통시장 활기 심기'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지역 내 소비로 다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상생 사업이다.

각 지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부방 프로그램,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 문화행사 지원 등 생활권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사회문제와 복지 수요에 맞춰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듯 한난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부에서 문제해결로,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지 기대된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의 올해 사회공헌 활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전문성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의 참여를 에너지복지 재원과 연결하며, 지역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과 연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

1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9월 12일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 대회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개최했다.
2한국지역난방공사 최금숙 경영관리처장(오른쪽)이 굿피플 이용기 회장(왼쪽)에게 대회 참가비를 기부하고 있다.
3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가운데), 이태동 에너지재단 이사장(왼쪽),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3

메트로 한줄뉴스



▲'라스트 댄스' 최민정, 시즌 첫 쇼트트랙 월드투어 금1·은2·동1 수확
▲'시즌 10승' 안세영, 덴마크 이어 프랑스오픈까지 제패 /사진 뉴시스

▲'0-3→4-3 대역전극' 김보미, 데뷔 7년 만에 LPBA 첫 우승
▲서울대 소장 불정심다라니경,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됐다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 문화훈장…이현세·박정자 '은관'
▲전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한눈에…진흥원, 통합 안내